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서로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더욱 더 많은 아름다운 가정들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세워져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각 가정마다 예수 안에서 귀한 열매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4:2-4)

한국 교회, 싱글 크리스천 수용하지 못한 채 결혼 장려 위해 고군분투 CT, 한국의 결혼율 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교회의 노력 현장 취재 소개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을 꿈꾸며 결혼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사람들이 말한다.

강재희씨는 매일 아침 분주하게 9살짜리 아들의 등교 준비를 시킨 후에야 서울의 한 보험회사에 출근한다. 주말에도 혼자 아이를 돌보느라 쉬지 못한다. 남편은 끝까지 치러 가거나 일하기 때문에 바쁘다고 말한다.

재희씨는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는데 일상생활에서 남편과 잦은 다툼이 있다"고 말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고 싶지만, 남편에게는 돈과 성공, 명예를 얻는 일이 더 중요한 것 같다.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힘들다"고 말했다.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부부 사이에 논쟁이 생기기도 한다.

재희씨의 남편은 기독교인이지만 힘든 업무 일정을 핑계로 주일예배에 매주 나가지는 않는다. 재희씨는 아들을 기독교 학교에 보내고 싶지만, 남편은 아들이 '넓은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낫다는 이유로 공립학교 교육을 선호한다.

결혼 생활에 대한 재희씨의 고민은 얼핏 사소해 보이지만,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결혼에 대한 환멸이 커지고 있음을 상징하는 것일 수 있다. 오늘날 한국의 많은 미혼 남녀들이 결혼과 육아가 부담스럽다고 말하고 있으며, 한국 미혼 여성의 65%가 '비혼'을 선언하며,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고용과 경제적 상황이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생긴 것이라고 말한다.

한국에서 기독교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한국의 개신교 성도의 비율은 21%로 정체되었다. 한국인의 절반 이상이 종교가 없다고 말한다. 젊은이들은 점차 종교에 관한 관심을 잃어가며, 개신교는 점차 '노인의 성지'가 되고 있다.

결혼이라는 제도는 한국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식된다. 이는 개인을 넘어 공동체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한국에서는 아이를 낳는 일이 애국하는 것이라는 표현을 흔히 쓴다. 하지만 결혼율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2022년 11월, 한국의 13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부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미만이 '결혼이 필수'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실제로 2020년 혼인신고 수치가 '20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고, 지난해 출산율은 0.78명으로 떨어져 3

년간 세계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동거에 대한 수용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남녀가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고도 함께 살 수 있다는 말에 65% 이상이 동의한다고 답했다.

CT인터뷰를 통해 만난 한국의 목회자와 성도들은 "기독교인의 결혼관도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어려움과 무관하지 않으며, 많은 한국 교회가 결혼 사역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부부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은 부족하다"고 말했다.

50여 개의 가정사역 단체와 대형교회로 구성된 한국가정사역협회는 가족 중심의 여러



한국 내의 기독교 결혼 비율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많은 한국 교회는 지금이 위기라고 인식하고 있다. 목회자들의 노력이나 싱글 크리스천들의 결혼에 대한 소망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결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변화할 거라 생각하는 기독교인은 매우 적다(As South Korea's Marriage Rates Decline, Churches Try to Bring Back Romance: But they struggle to promote "I dos" without sidelining single people in their flocks).

모임과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서울 소재 대형교회인 온누리교회는 정기적으로 결혼 준비와 결혼 생활에 관한 다양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대구 동신교회는 기혼 성도들이 더 많은 자녀를 낳도록 장려하기 위해 자녀 헌신 예배에 자녀와 함께 참여하는 부부에게 1,000달러의 선물을 주고 있다. 또 다른 교회는 상담목사와 함께 부부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여행을 가도록 후원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역을 통한 교회의 노력이 엿보이지만, 일부 기독교 지도자들은 교회가 결혼한

부부를 위해 더 실질적인 사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가정사역협회 리더 신종근씨는 "한국교회가 성도들에게 성경을 바탕으로 한 결혼관을 심어주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의 현실에서 참담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교회와 기독교 지도자들이 그동안 한국 교회의 외적 성장에만 집중하면서 성경적 관점을 바탕으로 결혼과 가정에 대한 가르침을 등한시했다"고 말했다.

(3면으로 계속)



찬양에 은혜가 넘치는 건 온전한 성령의 역사이다!

TGC, 알렉스 디프리카 목사가 제시하는 은혜로운 예배 찬양을 위한 여섯 단계

예배 찬양에서 바라는 만큼 은혜를 받지 못할 때가 많다. 너무 큰 소음과 찬양 인도자의 지나친 "무대 위" 활동이 회중을 압도하거나 소외시키기도 한다. 때때로 음역이 너무 높아서 남자들이 따라부르지 못하고 그냥 서 있을 때도 있다. 적지 않은 찬양이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공연하는 솔로를 위해 작곡되었기에 똑같은 찬양을 훈련받지 않은 성도가 주님께 즐겁게 소리 내어 부르기가 쉽지 않다.

우리는 다 이런 경험이 있다. 어쩌면 지금 내가 말한 게 당신 교회 상황일 수도 있다. 찬양 예배에서 낙담하고 실망하곤 하는가? 좋은 소식이 있다. 예배 찬양은 얼마든지 더 좋아질 수 있다!

다음은 은혜롭고 활기찬 예배 찬양에 도움을 주는, 특히 목회자가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실용적인 조언이다.

예산과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교회가 다 다음 단계를 실천할 수 있다. 알렉스 디프리카(Alex DiPrima)목사는 평균 수준의 음악적 재능과 항상 쫓달리는 예산으로 운영되는, 도시 외곽에 자리 잡은 중간 규모의 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그는 이런 제한적인 요인이 은혜로운 회중 찬양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교회를 방문한 사람들이 모두가 함께 찬양하는 시간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자주 언급하기 때문이다.

물론 찬양에 은혜가 넘치는 건 다 성령의 역사이다. 그는 이 점을 염두에 두고, 교회에서 더 은혜롭게 함께 찬양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여섯 가지 실용적인 방법을 제시한다(6 Steps to Improve Your Church's Singing).

(3면으로 계속)



시론 3면
민경엽 목사



푸른초장 4면
나성균 목사



인문학으로 읽는 예수님의 생애 13면
강태광 목사

(3면으로 계속)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 퍼 스 | 온 라 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윤새롬 치과
Nouvelle Dental
Lily Yoon DMD / 원장 윤새롬
T. 917-908-0075
154-08 Northern Blvd 2H, Flushing, NY 11354
YOON.DENTAL154@gmail.com | WWW.LILYMD.COM

Sharing Bread for Soul (SBS)
생명의 빵 나누기 운동
말씀과 빵을 나누며 영혼을 살립니다
문의 강태광 목사 (323)578-7933

www.laguesthouse.com
LA 호텔식 하숙
GUEST HOUSE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김스전기왕)
TEL. 213-663-9181
965 Fedora St. L.A., CA 90006
Email: laguesthouse@live.com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31)

읽고 쓰고 마음에 새기는

킹덤성경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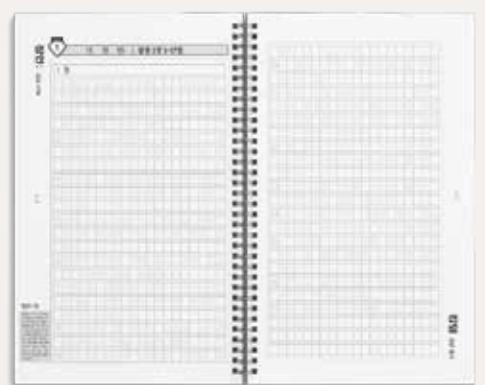
말씀은 시간의 벽을 넘어 우리의 마음을 만져 줍니다. 지친 날들에 은혜를 더해 새 힘을 얻게 하고, 상한 심령을 가만히 안아 줍니다. 말씀을 따라 한 구절 한 구절 쓰다 보면 어느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참된 평안과 은총을 마주하게 됩니다. 말씀이 주는 축복의 선물을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말씀이 생명입니다.



주문안내
개인주문: www.hisfingermall.com
단체주문: info@chpress.net / 718-886-4400



(일반용)



네모 칸마다 흐린 글씨위에 또박또박 바르고 예쁘게 써주세요.



(청소년용)



영어성경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네모 칸마다 흐린 글씨위에 또박또박 한글로 예쁘게 써주세요.

발행인 칼럼

3월의 행진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여기저기에 행진이 있다. 최근에 어떤 행진을 보셨는가? 최근에 보았고 또 자주 보는 것은 결혼 행진이다. 젊은이들이 행복한 모습으로 결혼 행진들을 한다. 기쁜 일이다. 젊은이들의 정반대 행진도 있다. 마약과 도박으로의 행진, 극단적 선택을 향한 절망의 행진도 그 기세가 만만치 않다. 안타까운 일이다. 그리고 보니 3월의 영어 이름은 'March' 이다. 행진이란 뜻이다. 행진이라는 3월이 다가 전에 스스로에게 묻고 싶다. 가슴 설레이며 맞이한 나의 3월은 무엇을 향한 행진이었는지.

역사적으로 유명한 행진이 있었다. 60년 전 8월,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이끌었던 자유를 향한 워싱턴 행진이었다. 그곳에서 'I have a dream'이 외쳐졌다. 3월을 맞으면서 한국의 시인들은 이렇게 노래했다. 박승숙 시인은 3월은 포근함이라고 했다. '가을에 떠난 사람 다시 돌아와 주었던 이야기 녹이며 씨앗 한줌 나누는 포근함이다' 박승봉 시인은 3월을 희망이라고 했다. '상큼한 미나리의 향기로부터 3월은 시작한다. 운몽을 적서 흐르는 시냇물 소리로부터 삶을 피우려는 부풀 희망이 온다' 오세영 시인은 3월은 함성이라고 했다. '만발한 진달래의 꽃 숲에 귀 기울이면 3월은 운동장에서 뛰노는 아이들의 함성으로 오는 것 같다' 이해인 시인은 3월은 은총이라고 했다. '아직은 빈손 처지고 있는 3월의 나무들을 보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경건한 기도를 바치며 내가 나를 타이르고 싶습니다. 죄도 없이 십자가 나무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억하며 가슴 한켠에 슬픔의 가시가 박히는 계절 너무 죄가 많아 부끄러운 나를 매운바람 속에 맡기고 모든 것을 향해 화해와 용서를 청하고 싶은 은총의 사순절입니다' 씨늘함 대신 포근함, 절망 대신 희망, 침묵 대신 함성, 그리고 책망 대신 은총. 이토록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주제들을 향해 시인들은 행진하였다.

구속사적으로 필요했던 행진이 있었다. 이천여 년 전, 사랑을 향한 예수님의 행진이었다. 사랑의 십자가를 향한 걸음이 이 3월에 있었었다. 십자가를 향한 하루하루가 힘들었을 터인데 그 길을 가시면서 쓰러진 자들을 돌리보셨다. 아픈 자들을 살펴보셨다. 그리고 3월에도 여전히 고쳐 주셨다. 여전히 품어 주셨다. 여전히 용서하셨다. 그런 3월을 지나며 마침내 만나신 십자가. 얼마나 아프셨을까. 못 박히신 손도 발도. 머리의 가시관도 얼마나 잠기 힘들셨을까? 군중들의 조롱도 견디시기 힘들셨을 터인데 십자가 앞에서 줄행랑을 놓은 제자들의 배반에 마음도 얼마나 아프셨을까? 찬란한 해도 차마 눈을 뜰 수 없었는지 눈을 감아 온 땅에 어두움이 깃들었다.

나는 이 3월에 보고 있다. 예수님의 사랑 행진에 동참하는 사순절의 사람들을. 아직 엄마 품에 안긴 갓난 아기들도 있다. 단잠을 깨우고 나온 많은 아이들도 있다. 그 자체가 기적과 같다. 청년들도 그 행진 가운데 뚜렷한 무리를 이루며 결연히 걷고 있다. 장년은 물론 노년의 어르신들도 그 행진에 가담하다. 한국 이민자뿐 아니라. 다양한 민족들이 사랑에서 물려와 예수님을 따라 사랑의 행진을 하고 있다. 그 행진 속에 포근함이 넘친다. 그 행진 속에 희망이 가득하다. 그 행진 속에 함성이 높다. 그 행진 속에 은총이 둘러싸고 있다. 그 행진 속에 나와 내가 따로 없다. 세대 간의 갈등도 없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있을 뿐이다. 그 행진이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되리라.

철저하게 기도하고 준비하는 리더, 소그룹 건강하게 이끈다! 리더십저널, 라이프투게더가 말하는 "소그룹 리더십의 10가지 기본 원칙"

소그룹은 리더십이 승패를 가름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한 공동체가 생명력을 가지고 영적인 재생산이 일어나며 구성원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소그룹 리더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다. 소그룹 전문사역기관 라이프투게더(Lifetogether, Inc.)의 설립자 브렛 이스트먼(Brett Eastman)은 그의 동역자 케일럽 앤더슨(Caleb Anderson)과 함께 "소그룹 리더십의 10가지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첫 번째, 혼자서 아님을 기억하라

소그룹 사역은 결코 리더 혼자만의 사역이 아니다. 이 사역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사역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소그룹 리더를 절대로 외로이 버려두지 않으신다. 성경은 반복적으로 모세, 다윗, 에스라, 느헤미야, 에레미야 등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신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사역인 소그룹 사역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것이 소그룹 리더들이 진행하는 모든 사역의 든든한 심적 기초가 된다.

간, 대답할 거리를 생각하는 시간 등 리더로서 준비할 절대적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특별히 적용 포인트를 준비하는 것에 시간을 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소그룹의 나눔이 실천될 수 있는 구체적인 적용사항을 예시로 제시할 수 있도록 리더 자신의 삶에 비추어보고 간단히 미리 실천해 보면 더 좋다. 이것은 짧은 시간의 준비로는 가능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

다섯 번째,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내가 섬기는 소그룹에 참여한 각 사람이 앉아 있는 자세와 모습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각 멤버들을 위해 먼저 기도하라. 기도하고 모임을 인도하는 것과 기도 없이 모임을 인도한 뒤의 결과를 비교해본다.

두 번째, 혼자 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므로 혼자 리더가 되려고 하지 말고 공동 리더, 혹은 리더십을 나눌 사람을 함께 세워야 한다. 함께 할 때 비로소 소그룹이 더 풍성해지고 견고해진다. 더 많은 사람을 리더십에 초청하고 함께 공동의 리더십을 행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맡겨 나가야 한다.

여섯 번째, 질문 후에 기다리는 법을 배우라

질문하고 나면 질문받은 사람은 그것을 이해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때로는 침묵도 두려워하지 마라. 자신이 답하려 하지 말고, 누군가는 입을 열도록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오답이라 할지라도 대답해 준 것에 대해 긍정적인 표현 즉 반응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꼭 해야 한다. 그 후에 "또 다른 분은요?" 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물어 더 많은 사람이 대답에 참여할 수 있게 하면 된다. 대답하기 두려웠던 사람들이 다른 답변자들이 편하게 대답하는 모습을 보고 자연스럽게 나눔에 참석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세 번째, 가식 없이 리더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라

가면을 쓰고 다른 사람인척 하는 것은 금방 그 한계를 드러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금 있는 그대로 만드신 것은 그 모습으로 소그룹을 섬기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일곱 번째, 진행 중간중간

교재에 보충 내용을 적는 시



질문과 정리내용을 소리 내어 읽게 하라

아홉 번째, 다른 사람이 인도하는 기회를 나누어 주라

미리 기록된 질문과 정리 문단은 나눔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큰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어야 한다. 동시에 이것은 참여자에게 권한을 나누어 주어 인도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읽는 사람도 중요한 진행을 담당하며 핵심 정보를 전달한다는 느낌을 주게 하라.

열 번째, 과정을 기쁨으로 누리라

여덟 번째, 질문의 유형과 성격에 따라 그룹을 더 작은 단위로 나누어 진행하라

8명을 넘어선다면 4명씩의 더 작은 그룹으로 나누어 특정 질문에 대한 대화를 나누게 하는 것이 더 깊고 활발한 나눔을 하게 한다. 그리고 각 그룹의 나눔 내용을 한 사람의 대표자가 요약하여 다시 한번 전체가 공유할 수 있게 나눈다. 기도제목 나눔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소그룹 멤버들에게 돌아가면서 한 번씩 인도하는 기회를 공유하도록 해본다. 소그룹 구성원들이 인도자의 입장에서 인도자가 준비하는 수고를 경험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김재성 | LA지사장: 이성자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성화, 성구약자,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목사까운
(323) 737-7699
인터넷 쇼핑몰: www.lachristianbookcenter.com

교회인쇄물·헌금봉투·배너
Order Online 30% LOW PRICE
in2printing.com
인투인쇄 T. 718-425-8505

담임목사 청빙공고
워싱턴주(WA) Bellevue에 위치한 벨뷰한인장로교회는 미주한인 예수교장로회(KAPC) 서북미노회 소속 교회로서 현 담임목사님께서 은퇴하시게 되어 아래와 같이 담임목사님을 청빙하고자 합니다.
청빙 요건: 1. KAPC 소속이거나 가입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2.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으로 목회하실 분, 3.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서 영어소통이 되시는 분
제출 서류: 1. 이력서(가족사진 포함) 및 학력증명서, 2. 목사안수증명서 및 2인 이상의 추천서, 3. 자기소개서(목회철학, 비전, 계획 포함), 4. 최근 설교영상 2편(온라인 링크와 원고)
유의 사항: 1. 제출마감일: 2023년 4월 29일, 2. 서류심사후 개별통지함, 3. 보내실 곳: bellvuekchurch@gmail.com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사역자청빙공고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는 보수 교단인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소속 교회로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선교 사역을 향해 달려가는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자체 성전을 가진 교회에서 사랑스러운 주의 자녀들을 양육해 주실 교육부 및 교회음악 담당 사역자를 청빙 하고자 합니다.
직책: 교육 담당 및 교회음악 담당 사역자
청빙 대상 및 자격: (1) Part Time or Full time 사역자: 정규 신학대학원을 졸업했거나 수확증인 분, (2) 교회음악 담당자는 교회음악 전공자
지원 자격: (1) 영어와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분, (2) 미 시민권자, 영주권자 우대 또는 미국내 합법적 체류로 근로 조건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영주권 후회 가능)
제출 서류: (1) 이력서, (2) 자기 소개서(신앙 고백서, 사역 경험), (3) 신학대학원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 증명서, (4) 목사 안수 증명서 또는 소속 교단 증명서, (5) 추천서 2부(현재 섬기는 교회의 담임목사 추천서 및 평신도 리더 추천서), (6) 설교-최소 2편 이상(설교 주 소 Link 혹은 DVD나 구글 드라이브 등을 통해), (7) 가족사진
지원 방법: (1) 위의 서류를 우편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 면접은 지원 마감 후 서류 심사 후에 개별 통지합니다. (3)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서류 마감 기간: 2023년 5월 31일
보낼 곳(우편 주소): (1) 6554 W. Desert Inn Road Las Vegas NV 89146, (2) 이메일: kcalvarylv@gmail.com
문의: (702)296-9193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 담임 목사 조응철

찬양에 은혜가 넘치는 건...

(1면에서 계속)

1. 선곡을 잘해야 한다.

회중 찬양에 적합한 찬송은 수백 개가 넘는다. 따라서 선곡에 실패해서 은혜가 되지 않는 찬양을 부르는 건 변명의 여지가 없다. 좋은 찬양을 선택하라.

모두가 함께 부른다는 점을 기억하라. Spotify에서 제공하는 다섯 개의 "Together for the Gospel" 앨범은 좋은 선곡의 출발점이 된다.

2. 무반주로 자주 부르라.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찬양이든지 적어도 한 소절 또는 후렴구를 다 함께 아카펠라로 부르라. 종종 한 곡 전체를 아카펠라로 부르기도 한다. 사실, 우리 교회는 얼마 전에 모든 찬양을 아카펠라로만 부르는 비정기 예배를 시작했다. 다양한 세대로 구성된 모든 교인이 정말로 사랑하는 예배이다. 그중 십대와 이삼십대가 특히 더 좋아한다.

교인들이 옆 사람의 찬양 소리를 서로 들을 수 있어야 한다. 한두 곡은 악기 연주에 중단하고 교인들이 온전히 목

소리만으로 찬양하도록 인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3. 악기 소리를 낮추라.

악기 소리가 클수록 찬양 소리는 줄어든다. 악기 소리가 줄어들수록 찬양 소리가 커진다. 이걸 하나의 법칙이다. 우리는 지금 앨범 녹음을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찬양하도록 돕고 있다. 그러나 악기 소리를 줄이고 찬양 소리를 높이자! 회중 예배에서 악기는 찬송을 섬기는 도구에 불과하다. 그 외에 다른 역할이 있을 수 없다. 교인들이 악기를 단지 회중 찬양이라는 근사한 음식을 섬기는 웨이터로만 바라보도록 그들을 제자화하라.

4. 모두가 다 찬양할 수 있는 적절한 음역을 선택하라.

가스펠 가수 크리스 톰린(Chris Tomlin)처럼 고음을 뽑아낼 수 있는 남자는 거의 없다. 키를 한두 단계 내려도 괜찮다. 좋은 찬송가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노래 훈련을 받은 적 없는 모든 회중이 다 하나가 되어 하나님 찬양이라는 큰 무대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쉽게 만들라.

5. 더 크게 찬양하도록 격려하라.

회중이 더 크게 찬양할 수 있도록 최대한 격려하라. 등록 교인 모임에서만 아니라 나는 정식 예배 중간에도 종종 더 크게 찬양하자고 부드럽게 격려한다. "형제자매님, 우리가 지금보다는 더 크게 부를 수 있습니다." 또는 "다음 찬양은 그리스도인답게 더 크게 부릅시다."

6. 주도하라.

음악을 포함하여 예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이 당신에게 있다. 물론 찬양 인도자를 활용하는 것도 괜찮다. 어쨌든 당신이 직접 하는 거보다 더 나올 수도 있다. 단 교회 비전을 공유하는 찬양 인도자를 써야 한다. 찬양 인도자의 중요한 책임은 음악과 찬양에 대한 담임 목사의 비전을 실행하는 것이다. 그가 회중 예배를 통해서 성경적 이상을 성취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로서 실천할 수 있는 피드백을 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외에도 회중 찬양을 향상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다. 행여라도 당신이 지금 출석 교회의 찬양 시간에 실망했다라도 포기하지 말라. 찬양 시간은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다. 구원받은 사람은 찬양하는 사람이다.



시론

불안한 인간



민경엽 목사 (나침반교회)

기독교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 불안(Angst)이 인간의 기본조건이라고 하였다. 그는 에텐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은 죄로 인해 인간은 살픔을 잃고 불안을 얻었다고 하였다. "세계에 홀로 마주하는 두려움과 떨림이 인간의 기본조건이다. 모든 인간은 두려움과 떨림 속에 살고 있으며, 이 두려움과 떨림에서 면제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어느 대상을 향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저 두려운 것이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아니라 그저 불안한 것이다. 가끔 불안을 망각할 수는 있으나 근원적인 불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게 인간이다." 그의 말은 결국 인간이니까 불안한 것이고 불안해서 인간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죄에 빠진 인간의 숙명이고, 인간이 불안한 것은 정상이다.

불안이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것만은 아니다. 인간은 불안하니까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험을 앞둔 학생은 불안하니까 시험에 대비하여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다. 높은 데 올라가면 불안하니까 뛰어내리지 못하여 생명이 보호받는 것이다. 그러나 비정상적인 불안도 있다. 시험을 앞둔 학생이 불안해하는 것은 당연한데 시험을 준비할 수 없을 정도로 불안해하거나 시험이 끝났는데도 불안해하거나 시험 불 날이 아직도 멀었는데 불안하다면 비정상적이다. 높은 데 올라가는 것이 불안한 것은 정상인데 아예 조금만 높아도 불안 정도가 심하거나 비행기를 탈 수 없는 정도라면 비정상이다. 이런 불안 장애가 되면 단순하게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이 신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기도 한다.

불안 장애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세계 인구 절반 정도는 평생에 한 번 이상 경험한다는 공황장애는 심한 불안과 초조감, 죽을 것만 같은 공포감에 호흡조차 곤란해지지만, 병원에 가보면 아무런 이상이 없다. 매사가 걱정인 범불안장애는 건강, 재정, 죽음, 가족 문제, 인간관계 문제, 미래의 문제에 대해서 과도하게 걱정하고 불안하여 늘 초조하고 잠도 잘 못 잔다. 특별한 스트레스로 인해 생기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과거의 경험이 꿈이나 회상을 통해 자꾸만 반복적으로 고통스럽게 겹치기 힘들어한다.

야곱은 20년 만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자기 형 에서에게 저지른 과거의 죄로 인해 너무나 불안해하였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지나칠 정도로 심각하게 불안해하였다. 그 고통의 절정은 압박감 나무터에서 홀로 남아 어떤 사람과 씨름한 것이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사건을 기도로 이해하지만 조금 다른 해석을 내놓은 학자도 있다. 브리스벤은 여기서 등장하는 "어떤 사람"을 에서와 만나기를 두려워하는 야곱의 자아를 가리킬 수도 있다고 하였다. 마음으로는 에서를 만나 용서를 받고 화해하기를 원하지만, 몸으로는 차마 그런 길에 나서지 못했던 야곱의 자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야곱은 밤새도록 자기 자신과 저절하게 다툰 것이다. 죄악 된 자기, 자기 욕심에 빠진 자기, 모든 것을 제 고택대로 하려는 자기, 자기도 어찌 못하는 자기와 싸운 것이다. 드디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과 축복을 받은 후예야 야곱의 불안은 사라졌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싸워 이긴 사람이라는 뜻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새사람,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다.

23세의 꽃다운 나이에 불의의 교통사고로 온몸과 얼굴에 치명적인 화상을 입고 이화여대를 떠났던 이지선 교수가 23년 만에 다시 모교의 교수로 돌아가면서 첫 출근의 감회를 한 단어로 "충만"이라고 하였다. 충만이란 이것만으로도 충분하기에 모자라거나 부족하지 않다는 뜻이 아닌가? 그녀는 예수를 만났기에 자신의 삶을 보는 시각과 마음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한다. 그녀는 자신이 사고를 당한 사람이 아니라, 사고를 만났으나 지금은 헤어져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이 되었다고 당당하게 말한다. "충만"이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 세상의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다. 불안하지 않을 수 있다.

minkyungyob@gmail.com

(4면으로 계속)

한국 교회, 싱글 크리스천...

(1면에서 계속)

"한국 교회 내에서 결혼 사역을 잘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그는 덧붙였다.

"결혼 사역을 이끌 사역자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러한 프로그램은 보통 공식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되므로 참여하는 부부들이 가족과 결혼에 대한 사적인 어려움을 공유하지 않아 도움을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성도들 사이에서도 이혼이 늘고 있는데, 이는 이들이 '세속적 가치관'의 영향을 점차 많이 받기 때문이라고 신씨는 말한다.

결혼하여 아들을 둔 재희씨는 남편과의 이혼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목사님과 교회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 덕분에 버틸 수 있었다고 말한다.

"제가 이혼을 고민한다고 말하자 교회 성도들은 저를 위해 날마다 기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남편과 시간을 더 갖고 노력해보기로 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회 내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범적으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좋은 롤 모델이 없다고 재희씨는 말한다.

그는 "부부가 교회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도, 부부 사이에 경제적인 이유, 육아 문제 등 서로 이견이 있어 다투는 경우를 실제로 많이 본다"고 말했다.

한국 남녀 모두 결혼의 가장 큰 걸림돌은 경제적 이유라고 말한다. 두 번째 요인은, 남성들은 불안정한 고용이라고 대답

했지만, 여성들은 결혼이 불필요하다고 답했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일반적으로 결혼을 원하지만, 비기독교인 포레들과 비슷하게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압박에 직면한다. 교회 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미혼인 상태를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추가적인 스트레스와도 씨름해야 한다.

"미혼인 사람들을 한국 사회에서는 일부 불안정하거나 비정상적이라고 본다"고 영락교회의 성도 박지영씨가 말했다.

교회에서도 이러한 관점은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성남시의 할렐루야 교회 영어사역 담당 스티븐 장 목사는 "목회자 대부분이 결혼했고 미혼 목회자를 '2등급'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히 교회에 다니는 미혼여성들은 결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낙담하거나 오해받거나 저평가받고 있다'고 느끼고, 일부 목회자들은 "남편을 찾아서 (교회에) 오는 것 아니냐"는 식의 막말을 하기도 한다고 장씨는 말했다.

그들은 교회를 떠나 '가나안 기독교인'이 되기로 마음먹을 정도로 환멸을 느끼기도 한다고 그는 말한다.

'가나안'이라는 세 음절로 이루어진 단어를 거꾸로 읽으면 '안나가'인데, '교회에 가지 않는다'는 뜻의 '안나가'라는 용어를 만든 것이라고 장씨는 설명했다.

이 용어의 기원은 확실하지 않지만, 선교학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 사용되기도 하고,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자기 정체성을 나타내는 형태로 사용되기도 한다. (지난해 9월 한 '가나안 기독교인'이 목회자 및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 등 여러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기로 결심한 이유를 담은 인터뷰집을 출간했다).

'가나안 기독교인' 수는 2017년 한국 개신교인 중 23.3%를 차지했다. 장씨는 그 수치가 팬데믹 이후에 더 증가하리라 판단한다.

'가나안 기독교인'의 증가와 더불어 한국에서 기독교 인구가 줄었다는 것은 싱글 크리스천들이 신앙을 가진 배우자를 만날 기회가 줄었다는 뜻일 수도 있다. 많은 한국 교회에서 여성의 숫자가 남성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싱글 크리스천 여성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박씨는 현재 미혼이며 기독교 신앙을 가진 남성과 결혼하고 싶지만, 교회 내 성 불균형으로 인해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한다. 그는 교회가 싱글 크리스천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배우자를 찾는 이들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빛과 소금 교회에 성도이며, 광주에서 MBA 과정을 하는 탁영민씨도 교회 내에서도 믿음이 좋은 사람을 만나기 힘들다며 "교회가 성경적 가치를 중시하는 삶을 가르치지 못했으며, 결혼을 장려하는 역할도 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페미니스트 사고가 결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교회에서도 이야기해야 한다고 박씨는 말한다. 전국을 휩쓸고 있는 페미니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이는 가정 내 여성의 불평등한 지위뿐만 아니라, 사회 내 여성을 향한 폭력,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일부 한국 남성들의 성 혐오 발언 등 다양한 사안을 포함한다.

교회에서 결혼에 관해 이야기하지만, 페미니스트적 관점에서의 대화는 좀처럼 시도되지 않는다고 평가한다.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NYU 의대 웨일리 연구팀 (총책임자: 안지영 교수)은 세계 최초로, 여러 민족의 식습관, 환경, 박테리아와 만성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특히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국인의 질병발생 및 위험요인을 연구하여, 질병예방 및 보건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의료보험이나 신분제에 관계없이, 40세 이상인 미국내 거주자는 한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 집에서 완료하신 후, NYU의대로 무료 우송해 주시면, 25불 기프트카드를 보내 드립니다.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연락처

FAMILI Study (Hee Choi, MS, RD)
 NYU School of Medicine
 180 Madison Avenue # 3-23
 New York, NY 10016

전화: 646-501-3673 | 646-501-3674
 문자: 929-410-4475
 이메일: hee.choi@nyulangone.org
 웹사이트: http://www.nyufamili.org/kor/index.php



한분 한분의 참여는 우리의 2세에게 보다 건강한 사회를 남겨 줍니다.

여러 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240
캐나다	\$130	남미	\$240
한국/동남아시아	\$240	아프리카	\$240

신청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보냄		
구독자 이름 (후원자 이름)	한글:	목 사	<input type="checkbox"/>
	영어:	평신도	<input type="checkbox"/>
배달주소			
전화			
*다른사람에게 선물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영어:	
전화번호			
배달주소			
교회/기관명			

E-mail 구독신청 : nychpress@gmail.com / lachpress@gmail.com
 신청일자: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_____

◆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A.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E-mail nychpress@gmail.com
--	--

목사의 목상**이종식 목사**

(뉴욕 베이사이드장로교회)

**선물이나 봉사보다 더 귀한 것**

캐롤 메이홀은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어느 학교 선생님에게 열두 살 먹은 딸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세상을 떠나자 딸에게 엄마 역할까지 해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학교 일 때문에 딸에게 시간을 충분히 내주지 못하는 게 문제였고, 그것 때문에 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서 크리스마스 휴가가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크리스마스

스 휴가 때는 딸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막상 휴가가 시작된 첫날 딸아이는 자기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혼자 지내면서 식사 시간 이외에는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날도 그랬고, 또 다음 날도 그랬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될 때까지 계속 그랬습니다. 그리하여 아버지는 하루하루를 외롭게 보낼 수밖에

에 없었습니다. 마침내 크리스마스 아침이 되자 크리스마스 트리에 선물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뜨개질로 짠 한 켤레의 양말이었습니다. 딸아이는 두 눈을 반짝이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까지 이걸 다 짜야 해서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몰라요. 제가 방문을 잠그고 지금까지 했던 건 바로 이 뜨개질이였어요. 이젠 다 짰어요. 아빠 양

말이에요! 좋으세요?” “암, 좋고 말고, 야야, 정말 예쁘게도 짰구나, 고맙다.” 아빠는 딸아이에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딸을 덤피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 이 절없는 아이야. 양말은 시장에 가서 사면 되지 않니? 난 양말같은 건 원하지 않아. 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말이야! 난 너와 함께 지내며 너의 사랑을 받고 너의 관심을 사고 싶었던 거야.”

이 이야기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듯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봉사를 기뻐하시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아침저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해서 자기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우리 믿는 백성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은 하나님께 자주 나아가는 것임을 기억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를 틔타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증거로 히브리서 11장 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은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말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무엇이라면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도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듯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가장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하여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귀한 상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david2lord@hotmail.com

푸/른/초/장**나성균 목사**

(살롱장로교회)



개신교 특히 개혁 교단에서는 사순절을 잘 지키지 않는다. 가톨릭의 형식주의와 그것으로 신도들을 억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잘 지키기만 한다면 유익이 많이 있을 줄로 안다.

주님의 고난을 더 목상하고, 그 고난에 더 동참한다는 데...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가? 재림신앙과 연결시키는 것이다. 어차피 주님을 잘 보아야 하는데, 마지막 신앙의 승리가 주님과 최후 만남으로 결정될 터인데...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어 살면 제대로된 사순절을 지키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본문은 사순절의 승리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다.

1. 재림에 대해 속지 말라 (8-10)

8절과 9절은 3-4절에 대한 대답으로 주어졌다. 조동하는 자들은 주님의 재림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며 마치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세상이 창조된 이후에 그대로 있다고 억지로 말하고 있지만 주님의 재림은 더딘 것이 아니다. 다만 하나님의 시간 계산과 우리의 것이 다르고 또 모두 회개하고 멸망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오래 참으실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의 시간계산은 우리와 다르다. 천 년이 하루와 같고, 하루가 천 년과 같다.

이것은 시90:4 말씀 그대로이다. '주의 목전에는 천 년이 지나간 여재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계산하실 때 우리의 시간 계산이 참고가 될 것 같다. 우리가 그렇게 소원하던 대학교에 시험을 치는 날이나 합격하여 입학식에 참석하는 날이 여느날과 같지 않은 것이다. 또 사랑하는 이를 만나 처음 데이트하던 날이나 결혼식을 하는 날, 그렇

하시던 하루, 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던 하루, 홍해를 건너던 하루,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게 하시던 하루,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던 백성을 멸망시키시려는 하나님 앞에 모세가 목숨을 걸고 중보기도 하던 하루, 에스터의 아하수세로 왕을 만나던 하루, 사드락 메사 아벳네 고가 풀무불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산책하던 하루, 다니엘이 사자굴에서의 하루 등등

게도 소원하던 해외여행을 떠나는 날 등등 인생도 중요하고 간절히 기다리는 날이 보 통의 날과 다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날이 똑같다고 절대로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아마도 인류가 처음 범죄하던 하루, 그것을 해결하시던 하루, 노아를 통하여 물로 세상을 심판하기 시작하시던 하루, 아브람이 순종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가던 하루,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던 아브라함과 믿고 당기고

특히 예수님의 겹세마네 동산에서 몸부림치며 기도하시던 하루, 십자가상에서 절망과 고통으로 부르짖으시던 하루, 갈릴리 호반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고 물으시던 하루가 어떻게 다른 하루와 같겠는가? 주님의 사랑과 은총은 끝이 없다. 그 기준으로 하루를 생각해 보라.

이렇게 생각해보니,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와 같다는 말씀이 조금은 이해가 될 것 같다. 무엇보다 오래 참

으시며, 아무도 멸망 받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본받아 열정적으로 이웃 구원에 힘써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경계하시는 말씀을 잘 이해하지.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씀이다. 항상 최선의 방비가 없으면 뚫릴 수밖에 없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가? 혹시라도 세상의 재미에 끌려가고 있지는 않은가?

2. 재림을 잘 준비하라 (11-13)

단 하루라도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하여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 거룩은 구별된다는 말씀이다. 세속과 반드시 구별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세속은 마치 배를 타고 가는 나에겐 항상 바다와 같이 함께 있는 것과 같다. 그

이 답이다.

또 경건하게 살라고 하신다. 경건이란 역시 하나님과 같은 삶을 말하는 것이다. 영어로 경건은 godly이다.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해답이다. 어떻게 하여야 할까? 늘 기도하듯 목상으로 하나님 생각하고, 모든 순간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였겠는가? 를 따라 실천하는 것이다. 이것이 또한 사순절을 가장 잘 보내는 것이다.

주님을 목상할수록, 사순절에 주님의 고난을 생각할수록 그분의 고난에 동참할수록 더욱 예수님다워지고, 하나님다워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되어질 때 시간도 초월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본받으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

비 특히 핵무기들이 인류의 멸망을 재촉하고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경건한 생활로 재림을 준비하고, 죄악과 두려움, 모순과 욕심 덩어리를 모두 태워 없애버리실 날을 간절히 기다려야 하지 않겠는가? 의의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간절히 기다려야 하지 않겠는가?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열정적으로 사랑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자. 그러면 또한 위대한 역사가 나타난다. 세상의 위대한 역사는 사랑으로 이루어진다. 포도가 아픈 어머니를 빨리 병원에 모시고 가려다 형제가 자전기 점포를 운영하면서 유복한 생활을 하고 있었어도, 존경하던 과학자의 죽음으로 그를 사랑하여 그가 개발하던 글라이더에 관심을 갖고 마침내 비행기를 개발하였다. 월트디즈니가 두 딸이 아무것도 없이 돌아서 50번이나 넘게 작은 목마를 타면서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우리 딸들과 같이 많은 아이들을 정말로 신나게 놀게 할 수는 없을가 하는 사랑으로 디즈니랜드를 개발한 것이다. 20년 후의 일이다. 개관식에서의 그의 말이 우리를 울린다. "기적과 같은 여기 이곳은 바로 딸을 향한 나의 사랑이 만든 결과물입니다." 사랑은 실천에 관심을 다한 것이다.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는 곳을 사랑과 관심으로 동일하게 바라본다면, 놀라운 일을 감당하며 끝없이 경건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다. 사순절의 신앙, 재림을 대망하는 실수 없는 삶은 생각밖의 작은 실천에서 이루어진다. 하루하루 나의 달라지는 삶은 무엇인가?

revskna@gmail.com

사순절과 재림신앙**베드로후서 3:8-13**

바닷속에서 살면서 어떻게 하여야 세속의 바다에 빠지지 않는가? 철저하게 방수를 할 수 밖에 없지 않은가? 물이 없으면 항해를 할 수 없어도 그 물에 빠져버리면 모두 다 죽게 된다. 세속의 물결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애써 죄악의 바다를 빠져 나가려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절대로 세속에 빠질 수가 없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다.

이 세상은 모순 덩어리이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안타깝고 두렵기 짝이 없다. 많은 독재자들이 너무나 많은 죄를 저지르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 많은 핍박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이웃의 굶어 죽는 것을 외면하고 있다. 그 속이 지구촌을 몸살을 앓고 기상이변을 통하여 인류를 멸망시키려 하고 있다. 많은 군

한국 교회, 싱글 크리스천...

(3면에서 계속)

대구동신교회 문대원 원로목사는 “한국 복음교회에서 페미니즘 이념과 신학에 대한 반대가 큰 것은 ‘페미니즘이 대립을 조장하는 젠더 중심의 이념’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교회는 ‘성경적’ 결혼관을 강조하고 있다고 문 목사는 말했다.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본질적인 가치를 갖고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결혼을 영원한 헌신으로 바라보는 존재라는 가르침이다.

문 목사는 교회 내 남성 성도

들에게 아내를 섬기도록 독려하자 이후 ‘점차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목격했다. 그는 예수님의 삶이 권력자가 약자를 지배하기 보다는 어떻게 섬기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적 권력을 세속적 권력과 대비하여 설교했다.

더 나아가 문 목사는 단순히 강단에서 성경적 진리를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의 삶에서 “감정적, 관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여전히 많은 한국 교회에서 새로운 분야이다. 우리는 (성동함의)회복과 개혁, 그리고 영적 치유에 대해 전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한국교회에서 최근에 아버지 중심의 사역이 구성되며 변화하

고 있다고 문 목사는 말했다.

서울 소재 대형교회 은누리교회는 부모로서 성경적 원리를 실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남성들에게 지원과 기도, 교제를 제공하는 ‘아버지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군대나 교도소 등 국내 교회와 시민단체 등에서도 진행되었다.

은누리교회에서 영어 사역을 하는 스티븐 차 목사는 기독교인 남편들에게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교회가 “유교에 뿌리를 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문화를 탈피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국교회가 그리스도 중심의 건강한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동시에 많은 성도들이 독신주의에 대한 성경적

관점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를 바란다.

한국에서 독신에 대한 인식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독신을 선택하는 한국인의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

국내 1인 가구가 2020년 ‘역대 최고인 31.7%’를 기록하면서 ‘자발적으로’ 독신의 상태를 즐기는 사람들이 뜻하는 혼족이라는 용어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결혼하지 않는 삶의 방식을 선택한 사람들을 일컫는 용어인 비혼과 같은 다른 문화적 용어가 최근에 등장했다. 이는 결혼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미혼이라는 용어를 대체한다.

CT가 인터뷰한 기독교 여성들보다는 남성들이 더 독신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 기독교계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기독교 석사과정 중하고있는 남학생인 탁씨는 독신주의가 신성하다는 관점을 제시했다. 그는 “예수님과 바울 또한 독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독신으로 사는 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은누리 교회에 다니고 서울에서 헤드헌터로 일하고 있는 베드로씨는 독신으로 사는 것도 괜찮다고 말한다.

결혼은 더 이상 “삶에서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고 그는 말했다. “결혼만이 옳은 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결혼하지 않고도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했다. 배씨

는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이 MZ세대 성도들과의 결혼에 관해 이야기하려면 더 많이 공감할 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 기독교 청년들은 교회 내에서 전통적인 사고방식에 따라 결혼이 필수적이고 하나님께 헌신하면 배우자를 주실 것이라고 말하는 기성세대로부터 결혼하라는 압박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배씨는 “기성세대는 청년들이 이기적이고 무책임해서 결혼하지 않는다는 편견을 버리고,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에 공감하고, 그들의 생각을 인정하고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묘한 미혹의 영

종말의 시대에는 성도를 미혹케 하는 영이 많이 설친다고 성경은 말한다. 요한은 그의 편지 글에서 미혹케 하는 자를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했다. 그런데 종말의 시대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라는 존재는 실제적인 대상으로도 등장하겠지만, 그 연원을 따라가 보면 결국 그 근원이 '악한 영적 세력'임을 발견하게 된다. 사단마귀가 그 계계를 통해 주의 법을 대적하여 주의 자녀들을 허무한데 굴복시키는 힘으로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 방법과 내용들이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교묘한 방법일 수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오늘날 진리의 피아(彼我)를 구별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도 그중의 한 가지 예가 될 것이다. 66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일하게 고백하면서도, 어떤 진리에 대한 반향은 각자의 자기 나름의 해석들을 통해 분출한다.

의 교회를 중심한 바른 신앙을 전수하는 일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 같다.

세상은 본래 편리함을 쫓아 그 발전의 동력을 얻어 계속적으로 진보해 왔지만, 불편한 본질의 영역인 진리 문제는 다른 문제이다. 결코 편리함에 따라 살게될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편리함을 유혹의 무기로 본질의 영역을 침해하는 것을 본다. 예를 들면, 채팅이 가능한 로봇에게 상황과 조건을 대입시켜 설교를 만들도록 명령해보면 아직은 짜깁기에 불과하지만 어느 정도의 설교문이 만들어지더라는 것이다. 이것이 점점 더 발전하면 어떻게 될까? 사람 목사를 통하여 예배하거나, 자신의 삶에 찾아온 고난의 일들속에 더욱 주님을 찾고 교회와 예배를 찾아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말씀과 은혜를 자판기 로봇같은 것에서 구하는 시대가 찾아온 것이다.

인 양 들고 찾아오는 이들이 있다. 오랫동안 격리된 인터넷 예배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오염이 되어버린 것이다. 새벽 제단이 어떻게 무당의 굿판에 비유될 수 있는가? '부모의 새벽기도, 자녀의 평생축복'이 어찌 사머니즘 사상과 동일시 될 수 있는가? 자신이 선택한 설교자, 자신이 설교자를 지명(?)하여 부를 수 있는, 그 어리석은 행동의 결과가 이런 악한 열매를 맺게 만든 것이다. 그렇게 컷가에 들려진 설교는, 그저 자신의 상식적인 신앙을 강화하는 지질거림에 불과할 뿐이다. 결코 영혼과 삶을 변화시켜낼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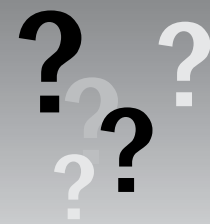
교회에 대해서도 혼돈된 사상들이 너무 범람하고 있다. 교회에 그 자체로는 단순한 건물 혹은 건축물이다. 그러나 그곳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됨으로 인해, 그 건축물은 구별된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다. 성전, 거룩한 하나님의 집(딤후 3:15)이다. 그래서 교회를 향해 나아가

에도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 늘 우리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정직하게 생각해보아야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의 기쁜 신 뜻,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 궁구하며 은혜를 찾아야 할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이 환란의 시기가 지나고 나면 그리운 교회로 더욱 힘써 모여야 함에도, 익숙해진 홀로 예배, 홀로 신앙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교회로 오는 것,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 있다. 사람들은 헌신하고 봉사하는 교회는 가끔씩 가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말씀의 책망도 받지 않고, 들키지도 않는 곳에서 적당히 앉아있다 가면서, 자기는 예배드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날지 모른다. 그러나 성경의 진리가 변하지 않은 이상, 우리는 주의 피로 값 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를 향해 나아가며 함께 모여야 한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셀비치사랑교회 / (310)749-0577
TLspc0316@gmail.com

Q: 목사님 애즈버리 부흥 운동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들었습니다. 애즈버리 부흥운동은 대학교에서 젊은이 중심으로 일어난 부흥으로 과거의 빈야드 부흥 운동과는 그 양상이 매우 다른 것 같은데 그 차이를 알기 쉽게 설명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부흥은 어떻게 오는 것인지요?

- 로미타에서 권명옥 권사

"상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할 때 진정한 부흥이 일어난다"

A: 애즈버리 부흥(Asbury Revival)은 현재 대학들과 교회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애즈버리 대학교 학생들은 일주일에 3번 이상 예배에 참여해야 하는데 2월 8일 채플 강당에 모여 자크 마이크릿브스 목사의 행동하는 사람이란 주제로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강력한 프리칭을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에는 이 채플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난 후에도 약 20-30여명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찬양을 이어갔고 나중에는 강단에 올라와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통곡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다른 학생들이 그 현장에 계속 몰려들었습니다. 그 장소에 성령님의 임재가 느껴지면서 모두 회개가 터지고 눈물이 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찬양하였습니다. 그 집회는 유명한 강사도 없고 눈길을 끄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아니고 프로페셔널한 찬양 리더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대학생들이 몰려들어 예배가 중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채플에 1,000명이 모여 예배드리고 그렇게 14일간 연속 24시간 예배가 드려지고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벌써 7만 명이 그 현장에 다녀갔습니다.

이 집회에 참여하였던 워싱턴의 류응렬 목사에게 의하면 이 집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1) hunger for God!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2) Radical Humility 극단적인 겸손이라고 말했습니다. 애즈버리 부흥에서 보통 부흥 운동처럼 방언이 터지고 치유가 일어난 것은 없지만 잔잔하게 평온하게 성령께서 임하며 역사하신 것입니다. 평안과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애즈버리 리 부흥은 이 시대에도 부흥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역사하시고 찾아오신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오늘날 미국 내 기독교 영성이 무너지고 침체된 이때,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각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루는 요즘, '애즈버리 리바이벌'은 이 땅에 청년들 가슴 속에 성령의 뜨거움이 일어나면서 우리 기성세대인 어른들과 교회를 깨우는 하나님의 Wake-up call입니다. 오늘날 미국과 미국교회 한국교회는 부흥이 필요합니다. 부흥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시 51:17)

과거 빈야드 부흥(Vinyard Revival) 운동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까지는 좋았으나 부작용도 많았고 빈야드 부흥운동에서 아쉬운 것은 성령충만을 위해 진정한 회개를 강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갈망하는 것까지는 좋으나 상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할 때 진정한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을 간과하였습니다. 우리가 부흥을 갈망하며 죄를 회개하고 철저히 낮아져서 상한 심령으로 부흥을 구합니다. 깨어진 마음(broken heart), 애통하는 마음에 부흥이 옵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부흥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신앙생활, 유행과 상품화

-미혹의 영, 분별력, 알곡과 본질-



그런 상황에 직면해 보면, 어찌 구니없는 말에 순제 말걸을 잊어버리게 된다. 게다가 말의 기술이 부족하다 보면, 진리가 아님을 알면서도 속 시원하게 응대하지 못하는 답답함에 처하게 되고 자리를 회피하기도 한다. 같은 신앙의 진영에 머무는 동지인 줄 알았는데, 자기주장과 고집하나를 넘어서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마음을 움츠리게 된다.

신앙의 경구중의 하나가, 악하고 거저된 것이면 아예 쳐다보지도 말 것을 원칙처럼 생각했는데, 이제는 뭐든지 쉽게 접촉정보를 얻어 스스로 보고 듣고 판단을 하겠다는 것이다. 굳이 먹어 보아야 맛을 아는 것은 아닐 텐데, 무엇이든 스스로 해보아야 알겠다는 시대가 되었다.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판단이 아닌, 스스로의 판단 능력을 한 번 믿어보겠다는 것이다. 사단이 사용하는 교묘하고 악한 지혜의 능력이다. 그래서 점차 진리 앞에서 입장과 견해라는 것을 강조하는 추세이다. 자신이 쌓아온 지식과 경험의 체계를 통해 주님의 말씀 앞에서 각기 다른 이해와 해석을 소리 높여 주장하는 것이다.

편리함에 상실된 본질

이렇게 세태가 변한 아주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손안에 들어온 전화기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전화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자신을 대단한 만물박사 혹은 천하를 가진 사람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생겨났다. 작은 기계 장치 안에 자신이 궁금해하는 모든 지식과 정보들이 들어있다고 믿기에, 이것을 마치 알라딘의 마술램프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다. 터치하기만 하면 무엇이든 다 알게 된다고 믿는 것이다. 세상의 정치 뉴스와 건강정보, 이민생활의 지혜로부터 시작해서 거의 모르는 것이 없는 만물박사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이제는 세상소식을 전달하는 수준이 아닌, 이제는 영적인 부분까지 침투해 들어온 것을 본다. 특히 인공지능 챗봇(ChatGPT)같은 기기의 등장은, 점차 침투된 진리를 파수하며, 하나님

신앙의 상품화

신앙의 상품화는 코로나와 인터넷을 통해 급격히 확산되었다. 흔히, 코로나로 인해 본격적으로 인터넷 영상예배의 르네상스가 도래했다고 말한다. 정한 장소에서 정한 시간에 검증된 설교자로 부터, 예배자들에게 운명적으로 허락된 준비된 말씀이 아닌, 자신의 입맛을 기중하는 말씀의 홍수가 쓰나미처럼 밀려드는 시대를 살게 된 것이다. 신앙생활은 원래 불편한 것이다. 편안 것만을 쫓는 게 아니다. 불편해도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므로 참된 평안을 얻고 누리는 것이 참 신앙인데, 이제는 자신이 정한 기준에 합당한 감동을 유발시키는 것동냥을 구하는 고아처럼 스스로 취사선택하며 듣는 말씀에 만족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렇게 근거 없이 말씀의 양식을 취하다 보니, 양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들도 순전하지 못한 것을 본다. 시대를 쫓아가기에 열심인 모습들이다. 말은 그의 속사람을 대변하고, 그 말이 그 삶을 증명하는 법이다. 그런데 자신의 삶을 미혹케 하는 것들을 구별 없이 취하는 시대를 살아가게 됨으로, 결국은 그 좋은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었다고 하면서도, 전혀 변화 없는 인생, 열매 없는 인생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영상의 화려함에 흠착해서 오랜 시간 동안 인터넷에 불들려 살아온 결과, 저들 영혼에는 믿음의 틈새가 벌어지고, 마침내 틈을 타고 들어오는 사단의 역사를 맛보게 될 따름이다.

잘 포장된 비진리 확산

진리와 비진리가 혼합된 채, 잘 포장된 영상들이 무차별적으로 성도들의 영혼을 위협하는 것을 본다. 새벽기도를 강조하는 것에 대해, 새벽마다 울며불며 교회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과 '부모의 새벽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이라는 용어를 무당의 굿당이나 불교의 사찰에서 손이 팔이 되도록 비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외치는 그런 유명한 인터넷 목사님의 견해를 자기 것

때는 구별된 시간과 장소의 개념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신앙 행태가 있다. 상황과 조건의 문제 본질을 흔들며 버리는 어리석은 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사상을, 예배당에 국한된 제도화된 교회를 추구하는 성숙이원론 주의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매우 아득한 생각이 든다.

더불어 영상예배에 대한 열려 있다. 영상예배에 익숙하게 되어, 엔터테인먼트 기술에 의해 상품의 질이 평가되듯이 예배와 설교의 영성이 카메라 편집 기술에 의해 우열을 가리는 시대가 되었다. 더 나아가 교회 강단에 실제 목사의 등장을 필요로 하지 않을 시대가 익숙함으로 다가왔다. 영향력 있는 교회들이 지교회들을 세우고 영상을 송출하여, 때로는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 시킨 무대에서, 예수님처럼 벽을 통과해서 목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 한마디로 '쇼'하는 강단이 만들어졌다. 유명 대형교회는 매 예배 시간을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만들어 낸다고 한다. 그리고 예배가 마치고 나면, 전화기를 꺼내어 그날 '쇼'의 값을 매기듯, 헌금을 결정하여 온라인으로 송금하게 된다. 이것은 실제 영성이 아니고, 가공된 영상일 따름인데, 그러한 가공의 세계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은 참람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교회, 수용성과 정당성

이와 같은 타락이 일반화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시대는 이를 수용하는 쪽으로 흘러갈 것처럼 보인다.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연세 드신 어르신부터 어린 아기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유튜브 브 동영상을 통해 일상생활의 정보를 얻고, 이제는 예배까지 이를 통해서 드린다고 하니, 과연 이 흐름의 대세를 누가 막을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그 어떤 것으로도 로컬 교회와 예배를 폐하는 일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일은 어디

나눔께 나아가야 한다.

분별없는 영상물과 사기

최근 나름, 한국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 목회자의 설교 영상이 떠오르며 마치 선지자의 외침같은 제목이 붙어 있었다. 예전에 코로나라고 하는 대포로 교회를 쏘아서 교회로 하여금 정신차리게 했다는 망언(?)을 했던 분이어서 그렇게 놀람지 않았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이 이분에게 대해 유혹되고 있기에 소개해 본다. 내용은 이러하다. 어떤 젊은 목사의 설교를 예로 들었다. '히스기야 왕 당시에 앗수르 대군이 유다를 쳐들어왔는데,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친히 물리쳐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앗수르 같은 인생의 문제가 찾아올 때, 성전에 올라가 기도해야 한다.' 이런 설교를 하는 젊은 목사에게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목사들이 교인들을 집단적으로 그루밍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전혀 말도 되지 않는 새로운 망언에 불과하다.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만난 성도가, 히스기야의 태도에 용기를 내어 교회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신앙관이라면, 그는 왜 목회자가 되었으며, 어떻게 설교를 감당했을까? 기가 막히는 일이다. 이분의 설교를 소개하는 전문 그룹이 있어서, 의의를 제기했는데, 삭제가 되었다. 더불어 이분 설교의 문제가 될 만한 앞부분을 삭제한 채, 유명하다는 그분의 설교를 올려 조회수를 통한 유익을 얻고 있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짜깁기하면서 충분히 장사 즉 돈벌이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된 것이었다. 실체가 무엇인가? 영적 사기죄를 지으면 사 돈을 버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류의 짧은 짜깁기 영상물에 유혹되어 환호작약하는 이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며, 정말 분별력을 위한 기도가 필요함을 절감하게 된다.

유행 따라 신앙생활

신앙생활은 유행 따라 하는 것이 아니다. 유행의 끝은 허무와 공허, 실패만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러한 유행을 만들어 내는 적군보다 더 교묘하게 우리 진지를 허무는 내부의 적들이 있음을 보아야 한다. 이를 극복하는 길이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아니다.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다. 회개를 사랑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다. 회개를 사랑하고, 예배를 회복하면 나머지는 성경의 언약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다이아몬드는 무슨 종이로 포장해도 다이아몬드이다. 본질은 그 자체가 알곡이기에 무엇인가를 더 포장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오늘날은 아무리 진리의 본질이 좋아도, 포장지가 부족하다 싶으면 쉽게 내쳐버린다. 그런데 너무 쉽게 본질을 치부하며 말한다. '목사님, 그것은 전통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끈대 같은 소리입니다. 요즘 젊은 MZ세대는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단정하듯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그저 전통, 혹은 끈대의

이야기가 아니다. 본질에 대한 가르침을 버리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이해와 진실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본질을 찾는 법임을 잘 기억해야 한다. 종말의 때가 다가오고, 오직 참 진리만이 존재하는 때가 도래한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알곡이다. 숫자와 보이는 현상의 화려함이 아니라, 회복하는 것이다. 회복하는 것이 되는 그날에, 주님이 찾으시는 그 본질, 그 알곡을 얼마나 준비하고 예비하며 삶의 시간을 지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오늘날 가짜가 너무 많다. 화려한 포장지가 물건 알맹이보다 더 제품의 선택과 가격을 좌우하는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런데 알맹이는 없고 포장만 화려하면, 그것은 그냥 '사기를 행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포장지가 아니라, 포장에 담긴 물건이다. 그 물건이 바로 본질이다.

davidnjeon@yahoo.com

목회와 선교



백운영 목사 (필라델피아 영생장로교회)

오늘날 젊은이를 위한 부흥 운동

지난 2월 8일에 Asbury College 채플에서 시작된 부흥 운동이 이제는 젊은 사람들의 영적 갈증을 채워주는 운동으로 지속되고 있는 것을 기쁨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조용했던 캔터키의 윌모어에 있는 기독교 대학 교내 채플에서 불

타오른 성령운동은 미 전국과 세계에서 10만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그곳을 방문하게 했습니다. 그런 뜨거운 시선과 관심이 못내 부담스러웠던 학교는 방문자들을 제한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학생들만 조용하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지속

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이 운동이 타지역대학으로 번져갔으며 여전히 젊은 학생들에게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고 찬양과 경배, 기도와 회개, 용서와 회복의 열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흥운동이 미국 캠퍼스 안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 내었는가 하는 열매가 더 중요합니다. 젊은이들이 알콜과 성적인 탐닉, 게임 중독에서 벗어났다는 증거가 들리고 있는 것은 고무적입니다. 또한 본질적인 주님에 대한 헌신, 기쁨과 겸손, 용서가 젊은이들의 삶에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부흥을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지는 역사가 증명할 것이지만 성경과 반대 길을 선택했던 미국 사회에 “여호와께 돌아가지”는 젊은이들의 갈급함이 이런 부흥 운동을 통해서 드러

나고 있기에 더 귀하게 보입니다. 지난 2월 12일 Super Bowl 때 몇 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알리는 광고가 방영되었습니다. 이 광고비 총액은 천만 불이 넘었지만, 기꺼이 그 천문학적 금액을 지불한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광고 후에 다양한 반응이 나왔는데 그런 돈을 써서 복음을 전하려면 좀 더 기독교적인 색채를 담아야 한다는 반응이 다수였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색채가 강하면 젊은이들의 관심이 덜하게 됩니다. 이 광고는 복음보다는 10대와 20대를 겨냥한 광고였으며 그들의 마음을 읽고 그들의 언어를 반영한 광고였기에 더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광고에는 He gets us에서 Jesus로 우리는 위하시는 분이 누군가를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최

근에 미국의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말들이 “Who really cares for us?” “I got your back”, “I’m looking after you” 사람이 메마른 시대에 사는 젊은이들은 사랑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나를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돌보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찾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메마른 시대일수록 이런 관심은 폭발적입니다. 이 광고는 젊은이들에게 예수님이 여러분을 돌보신다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주려는 의도가 있는 광고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복음에 대하여 더 마음을 열 수 있게 됩니다. 시대는 바뀌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시대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Asbury 대학교, Cedarville 대학교, Samford 대학교와 그 외 미국 캠퍼스 부흥으로 확산

되고 있는 영적 부흥은 어떤 영향력있는 지도자의 인도함도 없이 젊은이들을 예배의 현장으로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화려한 조명이나 유명 인사를 배제한 채 단순한 영적 갈급함을 채우는 것이 목적이었고 그 안에는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계획한 것도 아니고 대본이나 프로그램을 가진 것도 아닌 오직 찬양과 경배와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한 젊은이들의 스토리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읽어야 하고 미주 이민교회의 젊은이들도 이런 귀한 역사에 한 부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열매가 풍성하기를 위해서 뒤에서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gypaek@hotmail.com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기독교인 46%인데 北보다 심각... 선교단체 격정하는 나라

인구수 절반은 기독교인, 나머지는 무슬림인 국가 나이지리아에서 무고한 기독교인 목숨을 잃는 등 최근 심각한 박해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 기독교매체 크리스천포스트는 최근 ‘기독교인에게 가장 위협적인 나라’라는 제목의 기독교 활동가 사무엘 세이의 기고문을 실었다. 세이는 “기독교인에게 세계에서 가장 위협적인 나라는 아프가니스탄도 북한도 아닌 나이지리아”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세계에서 기독교인 5621명이 살해당했는데, 그중 약 90%가 나이지리아 북부였다. 이는 기독교 박해 채시 단계인 오픈도어스 올해 초 자료를 근거로 삼았다.



그는 나이지리아 북부에는 무슬림이, 남부에는 기독교인이 모여 산다는 지리적 특징을 언급하면서 지난 24년간 북부에서 기독교인이 테러 공격, 군중 폭력 등으로 살해당했다고 덧붙였다. 무고한 기독교인이 목숨을 잃은 사건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나이지리아 북부 소코토주의 여대학생 데보라 사무엘은 지난 5월 학우들과 채팅하다가 기독교 신앙을 드러낸 일로 익명의 군중들로부터 화형당했다. 그는 학문적 성공에 대한 비결을 묻는 말에 “예수님”이라는 답을 했다고 한다. 사무엘을 죽이자는 음모를 조정한 무슬림 학생들은 그가 이슬람교에 어기고 신성모독을 했으니 죽여야 마땅하다는 뻔뻔한 반응을 보였다고 전해진다.

세계 박해 감시 기구인 국제기독교협회(ICC)에 따르면 지난 14일 중부 카두나주에서 기독교인 10명이 살해당했고, 14명이 총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쳤다. 수일 전 인근 지역에서 기독교인 17명을 살해한 이슬람 무장세력에 의해서다. 피해를 본 기독교 공동체의 지도자 데렉은 ICC에 “현재 집권당인 진보회의정당(APC)에 투표하지 않으려는 기독교인을 막기 위해 벌인 학살 사건”이라고 전했다. 나이지리아는 기독교인과 무슬림이 인구수의 각각 46.3%를 차지한다.

나이지리아는 기독교 박해 세계 순위를 매년 경신한다. 2020년 오픈도어스의 ‘월드워치리스트’ 12위로 시작해 2021년 9위, 2022년 7위, 올해 6위로 매년 순위가 상승한다. 오픈도어스는 “기독교인이 나이지리아 북부에서 무차별적이고 잔인한 공격을 계속 받고 있다”며 남부까지 확산되는 조짐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교회 지도자 납치도 횡행한데 이는 고통을 받기 위함”이라며 “여성의 경우 성희롱이나 강제 결혼을 당할 수 있어 더 위험하다”고 했다.

마크롱, 연금개혁 성공... “정부는 죽었다” 반발은 여전

프랑스 야당 의원들이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의 연금개혁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제출한 내각 불신임안이 20일 의회에서 부결됐다. 마크롱 대통령이 정치 위기를 무릅쓰고 밀어붙인 연금개혁 법안이 사실상 의회를 통과했다는 의미다. 다만 프랑스 국민 다수가 연금개혁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당분간 적지 않은 사회적 혼란이 예상된다.



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 등에 따르면 하원이 이날 오후 표결에 부친 첫 번째 내각 불신임안은 과반 기준보다 적은 278명이 찬성하면서 부결됐다. 가결하려면 577석 하원 의석 중 4석 공석을 제외하고 과반인 287명이 동의해야 했다. 9표 차로 부결된 것이다. 연금개혁에 긍정적이던 공화당에서 이탈표가 다수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극우 성향 국민연합(RN)이 발의한 두 번째 불신임안도 찬성 94표를 얻는 데 그쳐 부결됐다. 첫 불신임안을 발의한 좌파 연합 뉴프(NUPES)의 마틸드 파노 하원 대표는 “프랑스인의 눈이 이 정부는 이미 죽었다”며 “내각과 연금개혁을 무너뜨리는 데 단 9표가 부족했다. 이 법안은 더는 정당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내각 불신임안이 가결되면서 프랑스 전역에서 시위는 더 격화했다. 거리로 나온 사람들은 마크롱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했다. 프랑스 경찰은 이날 파리에서만 최소 171명이 체포됐다고 밝혔다. 트위터 등 SNS에서는 경찰이 진압 중 시민을 과격하게 폭행했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현지 BFM방송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국민 68%가 정부의 헌법 49조3항 사용에 분노하고 있다.

“美 정부, 일시적으로 모든 예금 보장 방안 검토”

미국 정부가 은행권의 유동성 위기 확산을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모든 예금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현지 경제지 블룸버그가 21일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재무부 당국자들이 연방예금보장공사(FDIC)의 지급 보장 대상을 모든 예금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전했다. 현재 미국에서 은행에 예금된 보호 한도는 계좌당 25만 달러(약 3억3000만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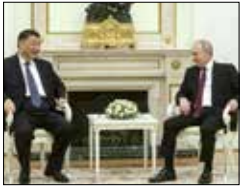
미국 은행권의 유동성 위기는 이달 들어 현실화했다. 지난 9일부터 미국에서 스타트업들과 거래했던 실리콘밸리은행(SVB), 암호화폐를 취급했던 실베게이트은행과 시그니처은행이 연달아 파산하거나 폐업했다. FDIC는 SVB와 시그니처은행에 대해 보호 한도 이상의 예금 지급을 보증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지난 15일 미국 퍼스트리퍼블릭은행의 신용등급을 종전 ‘A-’에서 투기 등급인 ‘BB+’로 4단계나 강등했다. 스위스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는 같은 날 ‘회계 내부 통제에 중대한 약점을 발견했다’는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고, 최대 주주인 사우디아라비아 국립은행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거부당했다.

이로 인해 은행권의 공포는 월스트리트 금융가와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으로 확산되고 있다. FDIC는 일시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한도를 넘겨 예금 지급을 보증할 권한이 있는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백악관 대변인실은 모든 예금을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명확하게 답하지 않았다. 다만 “지역은행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규제 당국이 지난 주말 적절하게 대응했다. 이에 따라 전국의 모든 지역은행에서 예금이 안정화됐다”고 자평했다. 추가 개입의 여지를 열어둔 셈이다. 블룸버그는 “모

든 예금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결국 정부도 은행권의 위기를 우려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대선 지지 확산” “3연임 축하” ... 덕담 주고받은 시진핑·푸틴

러시아를 국빈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일 첫 일정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나 내년 대선 당선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도 시 주석의 3연임을 축하하면서 “중국 제도와 통치 체제가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화답했다. 두 정상은 공식 회담에 앞서 이날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4시간 30분가량 비공개로 회동을 갖고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와 양국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21일 중국 외교부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푸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내년 러시아 대선을 언급하며 “당신의 강력한 영도 하에 러시아의 발전과 부흥은 빠른 진전을 이뤘다”며 “나는 러시아 국민들이 반드시 당신에게 확고한 지지를 보낼 것으로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정상들이 사석에서 할 법한 덕담을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건 이례적인 일이다. 때문에 이번 발언에는 미·중 경쟁 국면에서 푸틴 대통령을 전략적 협력 파트너로 여기는 시 주석의 속내가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 주석의 러시아 방문 직전 국제형사재판소(ICC)가 푸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그를 전범으로 낙인찍었지만 시 주석은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였다. 중국으로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는 와중에 푸틴 대통령이 실각하고 친서방 정권이 들어서는 건 최악의 시나리오다.

푸틴 대통령은 2000년 대통령에 취임해 8년간 재임했다. 시 주석도 재임 중이던 2018년 국가주석 연임 제한을 없애 올해 세 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푸틴 대통령은 시 주석을 ‘친애하는 친구’라고 부르며 지난 10년간 중국이 모든 분야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성과를 이뤘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어 “시 주석의 지도 아래 중국은 계속 발전하고 번영할 것이며 이미 정해진 목표를 순조롭게 달성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중국이 지난날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주년을 맞아 발표한 정치적 해결에 관한 입장을 진지하게 검토했으며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환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회동은 미국에 맞서 세계질서를 수호하겠다고 나선 두 정상이 친밀함을 과시하는 자리였다.

미국은 둘의 관계를 ‘전략결혼’에 빗대 비판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을 잠재적인 동맹으로 보고, 푸틴 대통령은 전쟁이 그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은 상황에서 시 주석을 일종의 생명줄로 본다”며 “애정이라기보다는 전략결혼”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영토에 러시아군을 남겨두는 휴전은 러시아의 불법 정복을 재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UBS, 크레디트스위스 인수... ‘급한 불’ 진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에 이어 금융시스템 위기의 최대 뇌관이던 크레디트스위스(CS) 은행을 스위스 최대 은행인 UBS가 합병하기로 했지만 시장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스위스 정부와 스위스국립은행(SNB)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UBS가 CS를 30억 스위스프랑(약 4조2300



억)에 인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SNB는 이번 인수를 촉진하기 위해 최대 1000억 달러(약 131조원)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UBS의 CS 인수 협상은 금융시스템에 불거진 불안 신호를 심각하게 받아들인 스위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며 타결됐다. 협상에 정통한 관계자는 “UBS 측이 전날 밤 CS에 인수 금액으로 약 10억 달러를 제안했지만 CS 이사회는 즉각 이 제안을 거부했다”며 “하지만 스위스 정부가 스위스 기관에만 특별 보호 조건을 적용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해 UBS가 유일한 인수 후보로 남았다”고 뉴욕타임스(NYT)에 말했다.

UBS는 정부 압박에 못 이겨 울며 겨자 먹기로 구원투수 역할을 맡은 모양새다. 콜름 켈러 UBS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인수를 ‘두 거물의 강제 결혼’이라며 “UBS는 절대 원치 않았던 일”이라고 분석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공동성명을 내고 “스위스 당국의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20일 스위스 증시에서 CS 주가는 장중 64% 떨어져 0.67스위스프랑(944원)까지 추락했다. CS 역사상 가장 큰 하락 폭이다. 스위스 우량 기업 20개의 주가지수를 나타내는 SMI는 개장 초반 2.1% 하락했다. 투자자들은 CS의 문제가 UBS로 번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 SVB 파산으로 노출된 미국 중소형 은행의 취약성도 해결되지 않아 시장의 불안과 불확실성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대만 마잉주 전 총통, 이달 중 방중

마잉주 전 대만 총통이 이번 달 중국을 방문한다. 대만 전·현직 총통으로는 첫 중국 방문이다.



로이터통신은 마 전 총통이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중국 난징과 우한, 창사, 충칭, 상하이 등지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그의 사무실 발표를 인용해 20일 보도했다.

1949년 국공 내전에서 마오쩌둥이 이끌던 중국 공산당에 패한 장제스의 국민당은 대만으로 퇴각해 지금의 정부를 세웠다. 그 이후 대만 정부의 현직 또는 전직 총통이 중국 본토를 찾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마 전 총통은 중국에서 학생들을 만나고 제2차 세계대전과 중일전쟁 유적지 등을 찾은 예정이다.

진중 성향의 국민당 소속인 마 전 총통이 2007~2015년 집권했던 시절 대만과 중국의 ‘양안(兩岸)’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화해 모드’였다. 집권 말기였던 2015년 11월에는 싱가포르에서 시 주석과 양안 첫 정상회담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6년 1월 국민당이 선거에서 패해 민주진보당(민진당) 소속 차이잉원 총통이 집권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는 악화 일로를 걸었다. 민진당은 중국 공산당의 ‘하나의 중국’ 정책을 정면으로 거부하며 대만의 독립을 주장해온 정당이다. 차이 총통의 대외정책 기조도 미국과의 밀착으로 대만 자주권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당은 내년 1월 총통 선거와 입법원 선거에서 중국의 지원을 업고서라도 승리하겠다는 태세다. 지난 2월 사리엔 국민당 부주석이 방중해 중국과의 대화 파트너가 국민당임을 공식화하기도 했다. 마 전 총통의 중국 방문도 이 같은 배경에서 추진된 것으로 해석된다. 연임 중인 차이 총통이 임기 제한규정으로 총통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만큼 중국과 국민당은 이번 선거를 양안 관계를 되돌릴 기회로 여기고 있다. 구리슝 대만 국가안전회의(NSC) 비서장은 전날 한 세미나에서 “중국 공산당이 대만 선거에 개입하려 할 것”이라며 “이에 맞서 단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76)



리차드 백스터(Richard Baxter)의 [외심, A Call to the Unconverted]

이윤석 목사 (NY 부르크린제일교회)



5장 악인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
* 고리 3: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회심과 구원을 기뻐하시며 그들의 죽음을 멸망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1) 입법자와 통치자와 재판관으로서의 하나님의 의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경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성경을 통해서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본성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성과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멸망 받아야 된다는 확고한 결심을 가지고 계신다. 반면에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자가 소수일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도께서 "너희들이 결단코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에 주목해 보라. 회개 없이 구원받으려고 하는 소망은 헛된 것이며, 또한 거듭나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헛된 것이다.

2) 죄인들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증거들

출애굽기 20장 6절, 24장 6절과 이 밖의 여러 곳에 빈번하게 언급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이 하나님께서는 여러

해마다, 날마다 그렇게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리시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의 죽음을 기뻐하는 자의 행동들이 아니다. 만일 여러분의 죽음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벌써 오래전에 당신을 쉽게 지옥에 집어넣었을 것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의 법정에 세우고 지금 당신이 그토록 악랄하게 변명하

를 당신에게 주셨다. 이 모든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멸망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고난에 의해 더욱 분명히 증명된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악인들의 죽음을 기뻐하셨다면,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죽음에서 구속하기 위해 그렇게 값진 대가를 지불하셨겠는가?

만일 여러분이 누가복음 19장 41절과 42절에서처럼 그리

"해마다, 날마다 악인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분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확신시켜 줄 것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의 회심과 생명보다 당신의 죽음을 더 기뻐하셨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토록 자주 당신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도 증명된다.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보다 멸망되기를 바라셨다면, 회개하라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여러 가지 섭리적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는 그 이유를 몰고서 직접 당신의 죄에 대해 중궁하신다면 당신의 강박한 마음은 얼마나 녹아내릴 것이며, 당신의 교만 한 모습은 얼마나 낮추어 질 것이며, 당신의 안색이 얼마나 붉어질 것이며, 당신의 역센 말투들은 얼마나 침묵하게 되거나 두려움으로 울부짖게 될 것인가!

스도께서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의 불순종 상태에 대해 심히 통곡하시는 것이나, 마태복음 23장 37절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나?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라는 말씀처럼 그들의 완고함을 탄식하는 것을 보거나 들었다면, 또는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눅 23:34)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거나 들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시거나 심지어 자기들의 의지적 불신앙으로 멸망당하는 자들의 죽음을 기뻐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사·모·칼·럼



허양희 사모

(텍사스 오스틴 주님의교회)

건강한 사명자

목사의 아내로 살다 보니 알게 모르게 받는 스트레스로 인해 그것의 관리에 관심이 많이 간다. 목사의 아내이기에 견뎌야 하는 것이 있고 마음으로 정리해야 하는 감정이 있어서이다. 목회하는 남편을 돕는 사모들을 만나면 속상할 때 그저 제단 앞에서 펄펄 운다고 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다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고인다. 그 마음을 너무도 잘 알기에.

현대인들이 삶에서 겪는 대부분의 스트레스는 대인관계에서 비롯되었기 사모들 또한 무례한 사람들로 인한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크다. 대체로 사모들은 스트레스를 겪으며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도 누군가에게 속 시원하게 말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을 때가 많다. 그래서일까? 사모들은 위장 질환을 호소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마음이 아프니 몸이 반응하는 것이다.

2018년 6월 21일 자 한겨레 신문은 아이슬란드 대학과 스웨덴의 카롤린스카 연구소 연구진들의 30여 년간의 공동 연구 결과에 대해 스트레스와 몸의 면역 질환은 연관이 있다고 보고했다. 그들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할 때 우리 면역체계가 교란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알려졌지만, 이번 연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다른 관련 스트레스 장애가 자가면역 질환 위험 증가와 연결되어 있음을 대규모 조사를 통해 보여준 첫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몸과 마음을 지키며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을까? 성경은 "스스로 지혜로운 체하지 말고 여호와의 경외하고 악한 일은 피하여라 그것이 네 몸을 치료하고 네 뼈들을 윤택하게 해 줄 것이다"라고 말한다(쉬론 성경, 잠언 3:7-8). 곧 스트레스를 주는 모든 상황에 여호와의 경외하라고 권면한다. 그것이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육체도 건강하게 해 줄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속상하고 힘이 드는 상황이 있을 때마다 사모들은 '내가 사모만 아니어도' 하며 식식거리며 가슴앓이하거나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총알같이 달려가자 말고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훈련을 해 보는 게 어떨까?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우리의 솔직한 감정을 하나님께 기도로 표현하며 때로는 펄펄 우는 것도 여호와를 경외함에서 나오는 태도라고 생각한다.

사모들이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고귀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시며 우리의 흘리는 눈물과 수고를 모두 보고 계신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한 일을 피함으로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명자로 영광 돌리기를 축복한다.

yanghur@gmail.com

Worldwide Church Directory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pastors across different regions like NY, NJ, HI, and Mexico.



목회서신



김창섭 목사 (세계선교교회)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그들의 아픔을 잊지 말자

현지 시각으로 2월 6일 오후 5시 34분에 처음 일어난 지진은 진도 4이상의 여진만 총 354번이 일어났다. 현재까지 사망자가 최소 55,268명(3월 13일 현재)이며, 너무나 많이 매몰되었기 때문에 피해를 모두 다 확인한다면 사망자가 10만 명이 넘을 가능성이 25%나 된다고 한다.

만명이 넘을 가능성이 25%나 된다고 한다. 튀르키예 전체 인구의 27%에 해당하는 2,300만 명이 집을 잃고 이재민이 되었다. 그리고 264,000채 이상의 건물이 파괴되었다고 한다.

지진의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도시 중의 하나인 안타키아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역사상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던 도시인 수리아 안디옥이다. 이곳도 당연히 완전히 폐허가 되어 기독교 역사에 매우 중요한 유적들이 모두 사라져 버렸다.

안전한 지역이 아니다. 최근에만 해도 1999년과 2020년에 진도 7.0 이상의 대지진이 있었다. 그런 지진을 겪고도 대비를 하지 않았기에 이번엔 피해가 너무나 컸다. 대비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 행정을 해왔다고 한다.

기를 원한다. 삶에서 만나는 어려움이 우리가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엡 4:15)하고 바울사도가 권면하고 있듯이, 우리는 평생을 그리스도를 향하여 성장해 가야만 하는 존재이다.

지진의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 정부는 지진 피해를 복구할 능력이 거의 없다. 그들에게 너희 정부가 잘 대비하지 않아서 이런 엄청난 피해를 겪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재민들이 갈 곳이 없는데도 튀르키예와 시리아 정부는 해주는 것이 거의 없단다.

둘 수가 없다. 이슬람 국가이니 도와줄 필요 없다는 생각은 더 더욱 하면 안 된다. 지진 피해 현황도 채 다 확인되지 않았는데, 벌써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가고 있다. 잔해를 치우고 건물을 다시 세우고 삶의 터전이 회복되는 데에는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다.



강찬 목사가 그의 딸 강하라 양과 함께 찬양하고 있다

사랑성결교회...원로목사 추대 및 담임목사 취임 감사예배

"새로운 지평 열려 사막에 강이 흐르고 광야에 길이 열리길"

사랑성결교회 원로목사 추대 및 담임목사 취임 감사예배가 19일(주일) 오후 4시에 열렸다. 이날 취임한 윤석길 목사는 "권다윗 원로목사님께서 하셨던 사랑과 열정을 배워 목회에 적용하겠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LA동지방회장, 로고교회 담임)가 담임목사에게 축사했다. 또한 조종근 목사(증경총회장, 사우스베이션교회 원로)가 원로목사에게 김시은 목사(미주성결교회 총무)가 교회에게 그리고 윤석형 목사(전총회장, 산삼교회 담임)가 담임목사에게 권면했으며 허경삼 목사(증경총회장)가 축도했다.



사랑성결교회 감사예배에서 권다윗 목사가 윤석길 담임목사로부터 원로목사 추대패를 전달 받은 뒤 포옹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 아래는 이날 담임목사로 취임한 윤석길 목사 부부

주님의영광교회 강찬 목사 찬양간증집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 돼야"

주님의 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는 19일(주일) 오후 1시 강찬 목사 찬양간증집회를 가졌다. 강찬 목사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 느껴지지 않은 상황 속에 살게 되었고 신앙인으로 살려고 하지 않았었다"며 "군대동기의 권유로 함께 갔던 CCC에서 은혜를 체험하고 사역자의 길로 가게 되었다"고 말했다.

tv를 시작하게 하셔서 찬양사역을 중단하지 않게 하신 것이며 지속적인 음원 발표를 하게 되었다. 십자가의 사랑 앞에 반응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은 크리스천들을 많이 보게 된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 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이다.

김병호 목사(중부감찰장) 집례로 열린 담임목사 취임식은 신용석 목사(남서부지방회장)가 사역, 치리권부여 공포, 취임패 증정을 했으며 윤석길 목사가 답사했다. 이어 윤석길 집례로 열린 원로목사 추대식은 윤 목사가 원로목사 소개, 추대사, 공포 및 추대패 증정을 했으며 권다윗 목사가 답사했다.

안디옥장로교회 창립47주년 감사예배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인가?"

안디옥장로교회(담임 지윤성 목사) 창립47주년 감사예배가 12일(주일) 오전 11시에 열렸다. 지윤성 목사 인도로 시작된 감사예배는 브라이언 김 집사가 김창을 장로가 기도했으며 임마누엘성가대 찬양이 있었다.

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첫째, 성도들 간의 사랑의 정도가 교회의 건강상태를 보여준다.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지만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고 감사추진하며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가 되어 힘을 합하여 주님께 사역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많은 교회들은 건강해진다. 헌신할 때 기쁨도 있고 하나님의 삼급도 받을 수 있다. 셋째, 복음전파에 우선순위를 두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다. 주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를 후대에게 물려주려면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디옥장로교회 창립47주년 감사예배에서 지윤성 담임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Table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pastors, including Galbraith, Danjok, Gongmei, Baskerville, Bannell, Boston, Saeseung, Sentehwan, Ilkansa, Akerly, Youngsang, Killeen, Winstone, Tacoma, and others.

동부교계 기사판

뉴저지장로교회 2023 ASK SUMMER SCHOOL 여름학교
 뉴저지장로교회(담임 김도완 목사) ASK SCHOOL에서 <2023년 여름학교(Summer School)>를 7월 5일(수)부터 8월 11일(금)까지 6주간 연다. 현재 늦은 등록을 3월 20일부터 받고 있다. 웹사이트: <http://askschool.org>
 ▲문의: summerschool@askschool.org

뉴저지교협, '로고스바이블 읽습' 개강
 뉴저지한인교협(회장 박근재 목사)이 주최하는 로고스바이블 읽습이 4월 11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정오까지 AWCA에서 무료로 진행된다.
 ▲문의: 신철웅 목사 201-388-5813

뉴욕영락교회 창립40주년 기념 특별 부흥성회 및 세미나
 뉴욕영락교회(담임 최호섭 목사) 창립40주년 기념 특별 부흥성회가 유재명 목사(안산빛나교회)를 강사로 5월 5일(금) 저녁 8시, 6일(토) 아침 7시, 저녁 7시, 7일(주일) 오전 11시에 걸쳐 열리고 작은교회연구소 목회자 세미나가 5월 8일(월)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뉴욕영락교회 주소: 65 East Williston Ave East Williston, NY 11596
 ▲문의: 최호섭 목사 718-533-1272

재외동포 국내교육과정 여름과정 모집
 국립공주대학교(총장 원상수)는 2023 재외동포 국내교육 여름과정을 모집한다. 교육과정은 한국어과정으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향상 및 한국사·문화 이해를 목표로 한다. 교육기간은 7월4일부터 8월10일까지 6주간 진행된다. 자격은 거주국에서 초등학교 이상을 졸업한(동등 학력 인정) 만 12세 이상 재외동포이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공주대학교 한민족교육문화원 홈페이지 <https://hansaram.kongju.ac.kr> 에서 확인하면 된다.
 ▲문의: hansaram@kongju.ac.kr, +82-41-850-6031

공교한 찬양을 위한 벨칸토 발성법 세미나
 공교한 찬양을 위한 벨칸토 발성법 세미나가 4월 2일(주일) 오후 3시에 워싱턴하늘비전교회(담임목사 장재웅)에서 열린다. 강사는 베다니 장로교회 지휘자이며 Midwest대학의 음악과 교수인 박요셉 교수이며 올바른 발성과 호흡법을 통해 발칸토 발성의 중요 기법들과 고음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 등 실전강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등록비는 무료이다.
 ▲문의: 워싱턴하늘비전교회 (410)595-6958

뉴저지 청년 연합 집회
 뉴저지 청년 연합 집회가 3월 29일(수)부터 31일(금)까지 뉴저지 필그림선교회(담임 양춘길 목사)에서 '믿음의 위라벨'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세 명의 강사가 이 시대의 청년들을 향한 메시지를 전한다. 29일(수) 김동환 장로(삼프로TV 대표), 30일 김명선 전도사(랩넛 워십, '시선' 작곡), 31일에는 주성하 목사(다니엘기도회 운영팀장, 오펜교회 청년국장)이 차례대로 강단에 선다.
 ▲문의: 필그림 선교회 201-461-1225



창립 40주년 감사예배 후 다 함께 사진 촬영을 했다

뉴욕영락교회 창립 40주년 감사예배 및 임직식

오직 여호와의 영광으로 새 힘 얻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교회

뉴욕영락교회(담임 최호섭 목사) 창립 40주년 감사예배 및 임직식이 3월 19일 주일 오후 5시30분 뉴욕영락교회(담임 최호섭 목사)에서 열렸다. 뉴욕영락교회는 한세원 목사가 1983년 개척했으며 2009년에 한세원 목사가 은퇴하고 원로목사로 추대되었으며, 최호섭 목사가 2대 담임목사로 취임했다.
 한 목사는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강조하며 "40주년을 맞이하는 영락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시대의 진정한 교회가 되어 세상에 물들거나 동화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복음을 통해 사람을 변화시켜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교회가 되라"고 부탁했다.
 이어 영락교회 40주년 역사를 담은 영상이 상영됐다. 특히 영상 속에는 계속해서 씨를 뿌리면 이 시대에 우리가 거둘 수 있고, 우리가 못 거두면 다음세대가 거둘 수 있다는 고결한 목사의 육성이 담겨있었다. 이

어 15년 전에 세워진 니카라과 영락교회의 교육관 건축기금을 이동홍 선교사를 통해 전달했다. 뿐만 아니라 김인선, 윤도근 선교사 등 3명의 선교사에게도 선교비를 전달했다.
 김종훈 목사(해외한인장로회 전 총회장, 뉴욕에일장로교회)는 축사를 통해 "귀한 사명을 가진 교회가 40년이나 이어온 것 자체만으로도 축하할 만하다"며 "교회를 개척한 한세원 목사와 2대 최호섭 목사가 40주년을 함께하는 것이 마치 모세와 여호수아 같다"고 기쁜 마음을 전하며 "40주년을 맞은 영락교회에 이사가 40장 말씀대로 오직 여호와의 영광으로 새 힘을 얻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교회가 되라"고 축복했다.
 2부 임직식을 통해 명예권사 2인(소원자, 신금자)과 명예집사 소병택 등 3인을 추대했다. 그리고 안수집사 이승준과 권사 2인(성미숙, 안미경)을 안수하여 임직했다. (정리: 김재상 기자)

부활절 연합새벽예배 각 16개 지역

뉴욕교협 제49회기 제2차 임실행위원회

뉴욕교협(회장 이준성 목사) 제49회기 제2차 임실행위원회가 3월20일(월) 오전10시30분 뉴욕새침장로교회(담임 박태규 목사)에서 열렸다.

회의에 앞서 이창종 목사(신년하례준비위원장)의 인도로 드려진 예배는 김정길 목사(전도분과위원장)가 찬양을 인도했으며 기도 이춘범 장로(감사), 말씀 방지각 목사(증경회장)로 진행됐다. 방지각 목사는 '부활의 첫 열매 (고전 15:20-22)'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성도의 죽음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심겨서 죽어야 열매를 맺듯 죽어야 부활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되기 위해 수리 중이므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덕을 보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이 선한 일 중에 최고라는 것을 전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합심기도의 시간을 갖고 김정길 목사(부활절 연합새벽예배를 위한 협력과 날씨와 인원동원을 위하여), 김정숙 목사(부활절 연합새벽예배 각 16



뉴욕교협 제49회기 제2차 임실행위원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개지역의 지역장과 순서자를 위하여), 정숙자 목사(선교대회 강사와 준비위원회 조직을 위하여) 각각 기도를 인도했다. 이날 예배는 황경일 목사(증경회장) 축도로 마쳤다.

이준성 목사(회장) 사회로 시작된 2부 회무는 기도 박태규 목사(할렐루야준비위원장), 회원 점명 양미리 목사(부서기), 사업 보고 유승래 목사(총무), 부활절 연합새벽예배 경과보고 권금주 목사(부활절 준비위원장), 49회기 감사 보고 김재룡 목사(감사), 선교대회를 위한 경과보고 김경열 목사(선

교대회 준비위원장)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무를 통해 2023년 부활절 연합새벽예배는 4월9일(주일) 오전 6시 각 16개 지역에

(홍현숙 기자)



정기총회 후 다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케네디컷 한인목사회 정기총회, 회장 조상숙 목사

복음합창단, 학술포럼, 이스라엘 단체여행 추진 예정

케네디컷 한인목사회는 2023년 정기총회를 3월 14일(화) 오전11시 케네디컷한인선교회(담임 안성근 목사)에서 가졌다. 1부 예배는 인도 안순국 목사(회장), 기도 조상숙 목사(부회장), 설교 김익태 목사(교협회장), 축도 황현조 목사(증경회장)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익태 목사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신명기 33:26-29)"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우리가 정말 누리는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있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막힘이 없도록 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그러한 믿음과 신앙이 우리를 하여금 구원의 복과 은혜를 받게 한다"고 전했다.

2부 총회진행을 통하여 회장의 사업보고(조나단 보크 박사의 선교강연, 노무홍 목사 장모상, 옥영철 목사 장인상), 광고와 현재 근황의 보고(황현조 목사의 한인선교사 컨퍼런스 가족 수양회 과테말라, 아펜젤러 그리고 언더우드선교 기념

관), 김진봉 선교사의 선교보고, 케네디컷한인정체성위원회 편집부 보고 등으로 진행됐다. 회계보고를 통해 총수입 \$859, 지출 \$802, 잔액 \$57로 보고했다. 회장으로는 부회장 조상숙 목사가 추천됐고, 만장일치로 다른 후보없이 단독회장으로 추대됐다. 신임회장 조상숙 목사는 당선인사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렸고 몇 가지 행사 계획을 밝혔다.

먼저 케네디컷에 남녀노소가 다 참가하는 복음합창단을 세워 갈 것, 친목과 기쁨의 행사로 골프·하이킹·당일피크닉을 통하여 교제를 강화할 것을 발표했다. 그리고 케네디컷지역 한인목사들 중에 구약학자, 신학자, 그리고 선교사 등이 참가하는 학술포럼을 통하여 성경의 역사적, 신학적, 그리고 선교학적인 학술을 인지하도록 노력하며, 이스라엘 단체여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리: 김재상 기자)



21희망재단 변종덕 이사장은 지진피해 돕기 기금을 목사회에 전달했다

교대회 준비위원장)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무를 통해 2023년 부활절 연합새벽예배는 4월9일(주일) 오전 6시 각 16개 지역에



목사임직예배 후 다함께 사진촬영을 했다

KAPC 뉴욕노회 허장길 목사임직예배

복음에 빛진 자의 초심을 잃지 않는 목사 되기를

미주 한인 예수교장로회(KAPC) 뉴욕노회 제92회 정기노회가 3월 14일(화) 오전 10시 뉴욕주혜장로교회(임병순 목사)에서 열렸으며 정기노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오후 6시 30분부터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에서 허장길 전도사 목사임직예배가 드려졌다.

목사 임직예배는 사회 부노회장 임병건 목사, 기도 이윤석 목사, 성경봉독 서옥석 목사, 찬양 퀸즈장로교회 찬양대, 말씀 노회장 임병순 목사, 서약과 안수기도 노회장, 악수례, 공포노회장, 착의식 및 권면 김성국 목사, 축사 문종은 목사, 담사 허장길 목사, 광고 서기 방정훈 목사, 축도 허윤준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노회장 임병순 목사는 "영광의 직분(누가복음 14:25-35)"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오늘 임직을 받은 허 목사만 아

서 예배를 드리고 결정했으며 다음 주 이를 위한 마지막 기도를 기쁨과 영광교회(담임 전희수 목사)에서 갖기로 했다.

한편 선교대회는 5월25일(목)부터 5월28일(주일)까지 퀸즈한인교회(담임 김바나바 목사)에서 열리게 되며 중남미선교사를 중심으로 한 선교보고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준성 목사는 "이번 선교대회 예산 목표액을 200,000불이며, 브루클린교회 협의회와 함께 할 예정으로 한인뿐 아니라 흑인 사회, 스페니쉬 사회와 공동으로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선교위원회를 2-3년 직으로 구성하여 선교전략과 선교방향을 수립하고 뉴욕교계의 선교정책을 확립하기 위해 제3차 임실행위원회 법으로 규정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이날 임실행위원회는 김영철 목사(감사) 폐회 기도로 마쳤다.

(홍현숙 기자)

미주 한인 예수교장로회(KAPC) 뉴욕노회 제92회 정기노회가 3월 14일(화) 오전 10시 뉴욕주혜장로교회(임병순 목사)에서 열렸으며 정기노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오후 6시 30분부터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에서 허장길 전도사 목사임직예배가 드려졌다.

목사 임직예배는 사회 부노회장 임병건 목사, 기도 이윤석 목사, 성경봉독 서옥석 목사, 찬양 퀸즈장로교회 찬양대, 말씀 노회장 임병순 목사, 서약과 안수기도 노회장, 악수례, 공포노회장, 착의식 및 권면 김성국 목사, 축사 문종은 목사, 담사 허장길 목사, 광고 서기 방정훈 목사, 축도 허윤준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노회장 임병순 목사는 "영광의 직분(누가복음 14:25-35)"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오늘 임직을 받은 허 목사만 아

니라 모든 동역자들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광의 직분을 받은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 그러므로 모두가 참된 제자가 되기를 힘쓰며,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머지않아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모두가 잘하였다고 칭찬을 받으며 주께서 주시는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받기를 축원한다"고 했다.
 허장길 목사는 "좋은 목사는 어떤 목사인가를 가슴에 새겨왔다. 좋은 목사란 우선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사일 것이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가운데 마음에 심어주시는 소원을 살아내는 목사, 복음에 빛진 자의 초심을 잃지 않는 목사, 그리스도 앞의 심판대에 설 때까지 변치 않는 주의 종이 되겠다"이라고 답했다.

(김재상 기자)

뉴욕목사회와 21희망재단 "교회가 할 일을 대신합니다"

튀르키에 지진피해 기금 모금 진행해

뉴욕목사회(회장 김홍석 목사)는 지난해 성지순례를 다녀온 튀르키에 지역에 대규모 지진 피해가 발생하자 기금모금에 나섰다. 임원들이 적극 나서고 회원목사들이 호응한 결과 현재 4만 달러 이상을 모금한 상황이다. 3월 14일(화) 오후 2시에 목사회 임원들이 21희망재단 사무실을 방문한 가운데, 변종덕 이사장은 3천 달러의 지진피해 돕기 기금을 목사회에 전달했다.

뉴욕목사회는 조용성 선교사에게 모금한 기금을 전달한다. 뉴욕을 방문하는 조용성 선교사는 3월 27일(월) 오전 10시 30분 뉴욕동원장로교회(박희근 목사)에서 "변화하는 현대 이슬람(The Transforming Morden Islam)"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며, 세미나 중에 목사회에서 모금한 구호성금 전달식을 가질 예정이다.

또 조용성 선교사는 목사회

가 후원하는 선교부흥회도 인도한다. 부흥회는 3월 31일(금)부터 4월 2일(주일)까지 회장 김홍석 목사가 시무하는 뉴욕기쁜교회에서 열린다. 조용성 선교사는 홍신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Th.M)과 T국 국립 마르마라대학교 대학원(MA, Ph.D 수료, 역사학)에서 공부하고, 합동 GMS 선교사와 선교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현재 북사이프러스 주재 선교사(37년 사역 중)이며, 홍신대학교 부설 바울&바나바 연구소 소장이다.

뉴욕목사회에 연락을 주면 목사회 임원들이 지진피해 구호금을 직접 픽업한다. 연락은 회장 김홍석 목사(646-287-7169), 부회장 정관호 목사(917-750-8174), 총무 박희근 목사(917-254-0887), 회계 유상용 목사(718-219-9914)에게 하면 된다.

(정리: 김재상 기자)

디모데목회훈련원 주최 목회자세미나 열려 “목회성공...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에 달려”

디모데목회훈련원(대표 이용걸 목사) 주최 목회자세미나가 20일(월) 오전 10시 나성한인교회(담임 신동철 목사)에서 열렸다. 박인수 장로 사회로 열린 세미나는 신동철목사 기도와 김장오집사의 특별찬양이 있는 뒤, 이용걸 목사가 강사로 단에 올랐다.

‘예레미야의 영성(렘 15:16)’이라는 주제로 열린 첫 번째 강의에서 이용걸 목사는 “예레미야는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라고 했다. 목회자의 즐거움을 말씀에서 찾아야 한다.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어야 하고 그 비결은 성령충만”이라고 강조했다. 이목사는 “목회자는 설교하는 시간이 기다려져야 한다. 그것이 지겨워지면 목회에 문제가 되고 설교



디모데목회훈련원 주최 목회자 세미나에서 이용걸 목사가 강의하고 있다. 사진 왼쪽아래 원안은 이날 전도간증을 한 이영희 전도사

준비가 안되면 주일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하며 “성령 충만한 자는 설교하는 것이 기쁘다.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이 기도하고 말씀을 봐야 한다. 영성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것이

다. 영성을 가지고 목회를 하면 성령 충만한 목회자들로 인해 사모와 아이들이 인정받고 사랑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목사는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여 성령 충만하여 목회가 회복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후 1시에 열린 두 번째 강의는 이용걸 목사가 ‘바울의 목회철학(행20:17-38)’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했다. 이용걸 목사는 “바울을 선교사로 생각하게 되는데 바울은 최초의 목회자라고 생각해야 한다. 이는 기록된 바울의 사역을 목회자들이 따라가라는 것”이라 설명했다.

다. 이목사는 목회자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유희 중 설교 표절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미국 목사 중에 설교를 표절해서 문제가 되어 사임한 자들이 있다. 설교집은 참고하되 표절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자세미나에 참석하는데 세미나에서 배운 것들을 자신의 교회에 적용하려고 한다. 하지만 아무런 검증 없이 배운 것들을 적용하려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많은 목사들이 한국교회를 벤치마킹하려고 하는데 한국과 미국의 상황, 그리고 미동부와 서부의 상황은 많이 다르다”라며 “사도행전을 보면 목회철학을 배울 수 있으며 벤치마킹은 타교회의 것들을 하는 것보다 성경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목사는 “지난 3년간의 팬데믹 기간을 통해 더 이상 설교가 부흥으로 이어지기 어렵게 되었다. 이미 웬만한 교회의 설교는 모두 검증이 되어버렸다”며 “이제는 잃은 양을 찾아가야 한다. 목회성공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 사역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목회자들이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양들을 보내 주실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이영희 전도사(한울교회)가 자신의 전도에 대한 간증을 통해 이날 모인 목회자들에게 도전장을 주었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샌디에고소망교회 선교축제

샌디에고소망교회(담임 안광진 목사) 제10회 선교축제가 24일(금)부터 26일(주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선교축제는 소망교회 창립 40주년을 기념함과 동시에 팬데믹의 여파로 4년 만에 열리는 대회이다. 이번 선교축제는 대륙별로 5개국 선교사들이 초대되었으며 총 6번의 집회(금 오후 7시, 토 오전 6시, 오후 7시, 주일 오전 9시30분, 11시, 오후 1시30분)를 갖게 된다.

▲ 문의: (858)292-0999

LA챔버콰이어 정기연주회

LA챔버콰이어(지휘 이정욱 장로) 정기연주회가 4월1일(토) 오후 7시 기쁜우리교회에서 열린다.

▲ 문의: (213)249-5950

나성한미교회 홍충수 목사 담임목사 청빙결정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는 나성한미교회는 담임목사 청빙공동의회에서 홍충수 목사를 담임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정했다. 본교회는 19일(주일) 열린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 교회법 제4장 제16조 <청빙>에 의거하여 홍 목사의 담임목사 청빙이 가결되었다.

▲ 문의: (626) 444-0058

남가주동신교회 고난주간 특별저녁집회

남가주동신교회(담임 백정우 목사)는 2023년 고난주간 특별저녁집회를 4월3일(월)부터 7일(금)까지 오후 7시30분에 갖는다. 강사는 3일(월) 김우준 목사(토렌스조은교회), 4일(화) 우영화 목사(동부사랑의교회), 5일(수) 고창현 목사(토렌스제일장로교회), 6일(목) 김정훈 목사(대흥장로교회), 7일(금) 백정우 목사

▲ 문의: (714)680-9556

머무는교회 찬양예배

머무는교회(담임 김문수 목사 1345 S. Burlington Ave. LA, CA)는 찬양사역자 조영석 목사와 함께 하는 찬양예배를 26일(주일) 오전 11시에 갖는다.

▲ 문의: (213)909-2820

감사한인교회 창립 40주년 기념성회

“우리들이 누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한인교회(담임 구봉주 목사) 창립 40주년 기념성회가 17일(금)부터 19일(주일)까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19일(주일) 오전 9시30분에 열린 2부 예배는 경배와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구봉주 목사 사회로 시작 때, 노준중 장로가 기도했으며 임마누엘 성가대가 찬양했다. 이어 손병렬 목사(포항공과대학교 담임)가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창 1:1-5)’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손병렬 목사는 “전능하시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주인이라고 확신하는가? 그런데 왜 염려하는가?”라고 질문하며 “우리들이 누린 많은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다. 눈앞에 있는 어려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며 살 때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좋게 보신다. 하나님 형상을 입은 우리들도 모든 것을 좋게 보아야 한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좋게 보기 바란다. 두 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좋게 만드신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세 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되게 하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을 믿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예배는 구봉주 목사 축도로 마쳤다. 한편 이날 오후 4시 창립 40주년 기념 및 임직식이 열렸다.

(박준호 기자)



동부사랑의교회 새생명축제에서 이동원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동부사랑의 교회 새생명축제 성료

“축복은 언제나 하나님을 전제로 한 단어”

동부사랑의교회(담임 우영화 목사) 2023 다락방과 함께하는 새생명축제가 17일(금)부터 19일(주일)까지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원로)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개최했다.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우영화 목사 사회로 18일(토) 오후 7시30분에 열린 두 번째 날 집회는 할렙루야 찬양대가 찬양했으며 이동원 목사가 ‘축복(창 39:1-5)’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동원 목사는 “축복은 언제나 하나님을 전제로 한 단어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축복하면서 그 축복으로 땅을 채우라고 하셨다. 그 축복의 삶을 산 대표자가 요셉”이라고 말했다. 이목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축복의 유통자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축복의 존재가 되어주는 것이고 이것이 성경적 축복관”이라며 “무엇이 요셉을 축복의 사람이 되게 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첫째 그의 영성에 있다. 그의 영성은 신적동행이었다. 두 번째 청지기적 성실성에 있다. 요셉은 가정총무, 감옥총무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최고책임자인 국무총리가 되었다. 그는 말은 일에 성실했다. 세 번째 선교적 담대함이다. 요셉은 존재로 하나님을 보여주었다. 요셉은 그가 가는 곳마다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더불어 사는 다민족 형제들이 한인커뮤니티를 보며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면 한다. 우리의 심장이 멈추는 순간이 우리 인생의 결산의 시간이다. 축복을 남기고 가는 사람, 내 가족들이 이웃들이 나를 보고 당신이 우리에게 축복이었다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말씀을 마치며 이동원 목사가 결단의 기도를 인도했으며 우영화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남가주감리교원로목사회 3월 모임에서 이은철 목사가 전중현 목사의 저서 ‘본회퍼의 생애와 사상’을 서평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 아래 원은 전중현 목사 부부

남가주 감리교 원로목사회 3월모임 및 출판기념회

‘본회퍼의 생애와 사상’ ‘전진규 목사 자서전’

남가주감리교원로목사회 3월 모임이 라팔마연합감리교회(담임 김도민 목사)에서 13일(월) 오전 11시에 열렸다. 백승배 목사 사회로 시작된 본 모임은 이은철 목사 기도, 김광진 목사(라팔마연합감리교회 원로)의 설교로 진행됐다. 김광진 목사는 ‘비전의 위대함(잠 29:18)’이라는 제목으로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감신대 교수님의 권유로 지난 1967년 미국 SMU에 유학을 오게 되었으며 1971년 석사학위를 받았다. 하지만 비전 없이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김 목사는 “어느 날 리처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을 읽고 충격을 받았다. 나는 항구 주변에 빵부스러기를 얻기 위해 머는 갈매기에 불과한 것을 깨달았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더 멀리 날기 위해 비행 연습을 하는 갈매기 조난단 리빙스턴에게 감동을 받았다. 그때부터 나도 꿈을 꾸게 되었고 비전을 갖고 살기 시작했다. 비전이 없으면 망한다. 꿈은 아름답지만 작심삼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꿈을 꾸는 자는 성실하고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 꿈의 실천은 경건의 연습이 동반되어야 한다. 2023년에는 비전을 갖고 꿈을 꾸며 계속 목적을 향해 정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한다”고 말했다. 예배는 김영현 목사 축도로 마쳤다.

이에 대한 부러움이 내에 대한 자성, 결단, 기도, 희망으로 이어졌다. 본회퍼는 말씀과 삶의 일치성을 외친 실천신학자요 사회윤리학자였다. 저자 전중현 박사님도 사회윤리학 박사이시고 아버지 전진규 목사님도 순교자이시다. 본회퍼와 전진규 목사님은 같은 길을 가신 분이다. 그래서 두 권의 책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출간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며 “분서는 단순한 자료수집의 재구성 아닌 본회퍼와 대면하고자 가까이 체험한 듯한 저자의 생생하고 현장감 넘치는 책”이라고 서평했다.

두 번째 서평에 나선 정용치 목사는 이 책을 읽으면서 감리교 목사로서의 무지에 대해 성찰하게 되었다. 숨겨진 보화를 찾는 것 같은 감동이었다. 근대 한국교회사에 전진규 목사님께서 훌륭한 발자취와 분명한 진솔한 영향력을 남기셨다. 그는 “해방과 함께 교회 성장이 가속화되던 시대 6.25 전쟁으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남아있는 성도들을 지켜야 한다는 목사의 소임을 다하시다 인민군에게 끌려가 처형되었다. 교회를 지키다 향년 55세로 순교하신 것이다. 그 분이 순교하신 후 70여년이 흘렀는데 지금 다섯분의 아들과 후손들이 교회와 사회의 훌륭한 지도자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열매이며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 자랑할만한 명문신앙가족”이라고 말했다. 서평에 이어 3월 생일을 맞이한 자들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원목회 4월 모임은 오는 4월 10일 산타클라리타에 위치한 시편교회(담임 박상훈 목사)에서 열리며 모임 후에는 인근 파피꽃 관광이 예정되어 있다.

(박준호 기자)



CMF 선교원 3월 정기 예배 참석자들이 예배후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CMF 선교원 3월 정기에배 및 목사 취임 감사예배

CMF 선교원(대표 김철민 장로) 3월 정기예배가 지난 3월 4일(토) 오후5시 CMF 선교원 회관에서 열렸다. 김철민 장로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에는 사도신경 암송 후 윤경도 선교사(태국)가 기도하고 영영민 목사(전 KAPC 총회장)가 설교했다. 엄 목사는 “팬데믹을 지나고 우크라이나 전쟁, 튀르키예 대지진과 같은 참사를 목격하며 세상의 끝이 임박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럼에도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다. 회개하고 변화

되는 삶을 살기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날 특별순서로 ‘카리스 3중주’가 은혜로운 찬양을 드렸는데 ‘참 아름다워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은혜 아니면’과 같은 많이 알려진 찬양곡으로 예배를 더욱 은혜 가운데 이끌었다. 카리스 3중주는 바이올린 남혜승, 피아노 이진경, 첼로 오현승으로 구성되었다. 또 이날 예배는 크리스천 박 사모의 간증, 채형병 목사의 합심 기도순서로 이어졌다.

(정리: 박준호 기자)



'지저스커피 트럭' 에 커피와 복음을 싣고 어디든 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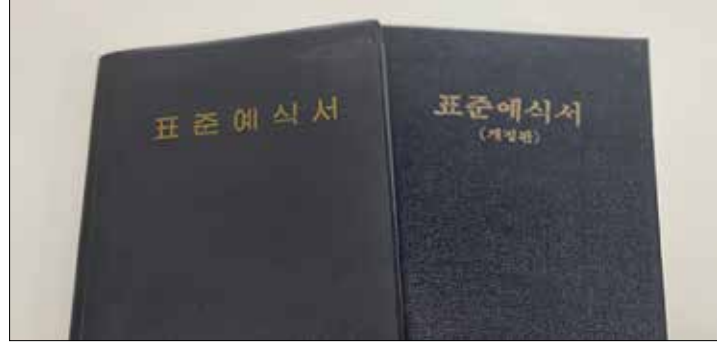
백두용 느낌이있는교회 목사의 커피 사역 이야기

'지저스커피 트럭'은 1.5평(5㎡)에 불과하지만 핸드드립 기구, 커피추출기, 전기 보온통, 소형냉장고 등이 갖춰진 '야무진' 작은 카페다. 차량 외부에는 예수님이 커피를 내리는 그림 등으로 알록달록 꾸며졌다. 차량에 새겨진 사도행전 16장 31절, 요한복음 7장 37절은 이 트럭의 정체성을 드러낸다. 이 트럭은 지난해 9월부터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 바리새타 출신의 백두용(울산 느낌이있는교회) 목사는 섬마을 캠퍼스 미자립교회 보육원 등 부르는

곳이면 어디든 방문한다. 그가 트럭을 몰며 7개월에 걸쳐 방문한 곳만 40여군데나 된다. 백 목사는 "커피는 사람들의 간격을 좁혀주고 복음을 전하는 매개가 된다"며 "커피 사역을 통해 모두 어렵다는 캠퍼스 선교의 가능성도 봤다"고 말했다. 백 목사가 2012년 4월 울산에서 개척한 느낌이있는교회는 주중엔 북카페로, 주말엔 교회 공동체가 예배를 드리는 '커피 교회'다. "지난해 뮤지컬 기획자와 대화했는데 공연장에서 커피를 나눠주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받았어요. 주중에 재능

기부를 하면서 커피 사역이 시작됐죠." 백 목사가 커피 사역으로 카페를 비우면 낮에는 성도, 저녁에는 백 목사의 아내가 카페를 지키며 백 목사의 사역을 지원했다.

가장 인상적인 곳은 대학 캠퍼스였다. 고신대 생명대 등 캠퍼스에선 지역 선교단체, 교회와 연합사역을 펼쳤다. "캠퍼스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보며 도전을 받았고 캠퍼스 선교의 불씨가 아직 꺼지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대학생들이 커피 한잔을 마시며 선교단체와 접촉할 연결 고리가 생겼죠. 이런 이유로 선교단체들의 요청이 이어졌어요. 지저스커피 트럭은 캠퍼스에서 가장 인기가 좋습니다." 커피 사역을 진행할 때 소정의 헌금을 받는다. 하지만 인건비는커피 재료비도 남지 않는 경우가 많아 손해를 보는 자비량 선교에 가깝다. 그럼에도 백 목사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이 사역을 멈출 수 없다고 했다. 캠퍼스 현장을 보니 교회와 선교단체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느낀다"며 한국교회의 지속적 관심을 요청했다.



예장합동 새표준예식서에 '온라인예배' 정식으로 등장?

30년 만에 목회 환경 맞춰 개정, 5월 일반 공개 앞두고 초미 관심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총회(총회장 권순운 목사)가 30년 만에 목회 환경에 맞춘 '표준예식서' 발간을 앞두고 있다. 특히 새표준예식서에 '온라인예배'가 정식 예배 형식으로 담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일 예장합동총회 '새표준예식서 집필위원회(위원회·위원장 윤영민 목사)'에 따르면 최근 공청회와 연석회의 등을 통

해 표준예식서에 대한 교단의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위원회는 오는 5월 일반 공개를 목표로 막바지 작업에 나섰다. 예장합동 표준예식서에는 장로교 신조와 개혁주의 신학·신앙의 기초에 따른 모든 예배와 예식 모범이 담겨 있다. 예장합동 표준예식서가 인쇄 자료로 출판된 건 1978년 제63회 총회 때로 93년 개정판이 나온 뒤 지금

까지 수정된 일이 없다. 그동안 수차례 개정 논의가 있었지만 신학적 논쟁 등으로 번번이 무산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 작업은 9부 능선을 넘어 사실상 출판만 남겨둔 상태다.

윤영민 목사는 "온라인예배 형식의 추가 여부를 두고 교단의 여론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 이달 초 열렸던 예장합동 교육부와 위원회 연석회의에서는 "온라인예배에 대해 아직 신학적 검토가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은 만큼 새표준예식서에 명시하기보다 비상 상황시 총회가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식으로 표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윤 목사는 "재난뿐 아니라 환우를 대상으로 한 예배 등 온라인을 활용해야 할 때가 적지 않다"면서 "오히려 예식서에 정식 추가해 목회적으로 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게 장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교회에는 장의자?... 성도들은 개인의자 좋아한다

성도들이 바라는 예배당 모습은

교회 내부 공간을 상상할 때 누구나 머릿속에 떠올리는 장면 중 하나는 예배당을 빼곡하게 채운 장의자일 것이다. 좁은 공간에 되도록 많은 성도가 앉을 수 있는 장의자는 여전히 대다수 교회의 예배당을 채우고 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장의자를 어떻게 생각할까?

홍성민 부경대 조형학부 교수가 최근 대한건축학회연합 논문집에 발표한 논문 '서서 중심의 개인적 예배 공간에 대한 사용자 인식 연구'에는 이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이 담겨 있다. 논문은 성도들이 바라는 교회 공간이 어떤 모습인지 살핀 연구 결과, 홍 교수는 부산 지역 개신교인 128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우선 장의자보다는 '개인 의자'를 선호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장의자를 선호하는 응답자는 6.3%에 불과했으나 개인 의자를 꼽은 비율은 57%에 달했다. 나머지 36.7%에 해당하는 이들은 장의자보다는 짧지만 여러 명이 앉을 수 있는 중간 형태의 좌석을 꼽았다.

교회 외부에 세상 사람들을 상대로, 혹은 성도들을 향해 '신앙 공동체의 확대' 느낌을 선사하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필요하다' 혹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은 각각 19.5%, 53.1%였다. 교회 내부에도 비슷한 의미를 띤 공간이 필요하지 묻는 문항에서도 '필

요하다'거나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은 76.5%나 됐다. 논문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예배당 내부 구조와 관련된 내용이다. 가령 회중석은 높낮이가 없는 평평한 형태보다는 강단을 내려다보는 '계단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단형을 꼽은 비율이 62.5%로 그렇지 않은 경우(37.5%)보다 훨씬 높았다. 1·2층이 구분되는 '발코니형'을 선호한다고 답한 비율(31.3%)보다는 발코니 없이 넓은 공간에 성도들이 모이는 구조를 좋아한다는 답변(68.7%)이 더 많았다. 좌석은 방사형으로 배치된 구조가 좋다는 비율이 85.2%로 가장 높았다.

이 밖에 성가대 위치는 모든 성도가 바라볼 수 있는 예배당 전면부에 있는 것이 좋다는 답변이 47.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회 내외부에 해당 건물이 예배의 공간임을 드러내는 '상징'(십자가나 교회 드로어)이 전부 있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57.1%였다.



학원선교사 "학교 침투 이단 꼼짝 마"

신학생 출신 '학원복음화인큐베이팅' 서 훈련

기독교복음선교회(JMS) 등 기독교를 빗자한 이단·사이비 공포증이 엄습한 가운데 중·고교 학원선교에 뛰어들어 이들이 있다. 신학생 출신 학원선교사들이 그 주인공이다. 20일 다음세대 복음선교 단체인 학원복음화인큐베이팅(대표 최세롬)에 따르면 이 단체가 운영하는 학원선교사 양성과정에서 배출된 신학생 출신 학원선교사들이 이달부터 학교 현장으로 속속 투입되고 있다. 파송 지역은 서울 경기 충남 등 다양하다. 해당 지역에 있는 교회와 기독교 단체, 기독교사들은 학원선교사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학원선교사들의 주요 활동은

예배 수업과 기독교동아리 활동, 수련회 등이다. 수업은 대체로 격주 2시간, 한 달 3시간 정도로 진행하며 동아리 활동은 횟수 제한 없이 매주 이뤄진다. 학원선교사들은 이 같은 활동을 통해 특별히 '이단예방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10, 20대를 겨냥한 이단의 포교 공세가 거센 환경 탓이다. 성결대 출신 신학생 출신교사는 "이단은 이단부터 학교 현장으로 속속 투입되고 있다. 파송 지역은 서울 경기 충남 등 다양하다. 해당 지역에 있는 교회와 기독교 단체, 기독교사들은 학원선교사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학원선교사들의 주요 활동은

다음세대 사역이 위기에 몰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백석대 출신인 김태혁 선교사는 "다른 종교와 이단들의 전략을 보면 보편적인 용어를 가지고 학생과 소통하며 공감의 폭을 넓혀간다. 기독교가 놓치는 부분을 전략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것"이라며 "학생에게 친근한 용어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절대 진리는 무엇인지, 이단이 왜 잘못됐는지 교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학원선교사를 꿈꾸고 있는 신학생 출신의 예비 선교사들도 동일한 문제 의식을 품고 양성 과정을 밟고 있다. 조만간 백석대 신대원, 서울신학대, 성결대 등에서 학원선교사 양성 과정이 새롭게 개설된다. 백석대 신대원 출신인 지용수씨는 "그동안 교계는 말로만 다음세대를 외쳤을 뿐 실천적인 모습은 제대로 보여준 적이 없다"며 "그러는 사이 이단들은 학교에 깊숙이 침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와 같은 신학생들이 적극 나서서 일선 학교 학생과의 신앙적 접점을 넓혀가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학원선교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관련 유엔 내정간섭 말라"

교계·시민단체 50여곳 강력 규탄

교계·시민단체 50여곳이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유엔 측이 내정 간섭에 나서고 있다"고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학생인

권조례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등 다음세대에 왜곡된 인권을 강요하고 이들에게 책임과 합리적인 규제를 지울 수 없어

성적 타락, 교권 침해 등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낳으면서 주민조례폐지청구 절차를 밟고 있다.

59개 단체가 연합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폐지시민연대는 20일 서울 종로구 사직로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교육청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조례 폐지가 대한민국 헌법과 법령, 국제 인권 기준에 불합치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데 대해 "조례 폐지 청구는 현행법안에서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반발했다. 올 초 유엔은 우리 정부에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관한 입장을 묻는 서한을 보내왔고,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월 24일 외교부를 통해 국제 인권 기준에

불합치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시민연대는 오히려 서울시 교육감 등이 국내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조례 폐지 의결을 맡은 서울시의회를 방문·조사해 달라고 유엔에 요청했다며 "자유민주복지 국가 국민과 학부모의 자긍심에 큰 상처를 준 행위이자 매국적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울시의회는 6만여건의 주민조례청구 서명 가운데 최종 4만4856건의 유효 청구인 서명을 확인한 후 김현기 의장 명의로 지난 18일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피종진 목사 3월 부흥성회

- 총신대학교 56회 동문회 회장
-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영어 연구원 동문회 회장
- 미국 Philadelphia Faith 대학원 총장 Carl McIntire(D.Min)
- 미국 Henderson Christian University 총장 Henderson Belk(Th.D.)

010-5255-7777
Godbless3377@gmail.com

1(수) 저녁 서울 강남반석교회 (강사랑 목사) 010-8331-3431
2(목) 오전 서울종합센터 UBN 국제재단 (이사장 정혜경)
3(금) 오후 서울신학교(학장 김준환 목사) 주최:World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교인 피종진 목사 이사장 정진희 목사) 010-7567-8291
서울 세문예술 올림피아대강당 주최:(사)세계문화예술총연합회 (이사장 한정석 목사) 010-3927-0691
4(토) 오후 무안 중앙교회 (안창남 목사) 010-2471-6266
5(주)저녁~예수 철원 성소기도원 (원장 박정연 목사) 010-9261-2922
6(목) 오전~오후 부천 예림교회 (김승희 목사) 010-7522-0236
10(금) 오후 서울 임마누엘교회 (남윤정 목사) 010-3234-1613
주관:한국부흥사회 (대표회장 정민철 목사) 010-3224-2345
11(토) 오후 국제신학교 (이사장 강영준 목사) 010-9260-1091
12(주) 저녁 광주 푸른초장교회 (김동영 목사) 010-3770-5279

제 228차 해외성회 (228th Overseas Assembly)

13(월) 일본 (JAPAN) 동경 나라다 총회신학 (학장 정스데반 선교사)
14(화) 일본 (JAPAN) 동경 나라다 사랑교회 (정스데반 선교사)
15(수) 일본 (JAPAN) 동경 Carmel 기도원 (원장 김태실 목사)
16(목) 일본 (JAPAN) 동경 우에노공원 아미전도 집회 및 특별행사 (일본 선교회) 귀국
21(화) 오전 인천 행복오르가는교회 (최기석 목사) 010-5278-0065
22(수) 저녁 서울 강남반석기도원 (강사랑 목사) 010-8331-3431
22(수) 오후 표선 엘리자베스교회 (원장 강인복 목사) 010-3247-9392
주최:한국기독교 연합부흥사회 (서재은 목사) 010-7142-2548
23(목) 저녁 서울 위대한국교회 (임미향 목사) 010-6201-8374
24(금) 오후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회장 김중선)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
25(토) 오후 한국기독교여성총연합회 (대표회장 권영자 목사) 010-5603-4997
26(주) 오전 서울 주사랑교회 (박상호 목사) 010-2343-7003
27(월)~29(수) 포항 생들교회 (박민정 목사) 010-3739-4442
30(목) 오전 한국 기독교부흥협의회 지도자회 남서울중앙교회
30(목) 저녁 서울 강남반석교회 (강사랑 목사) 010-8331-3431
31(금) 오전 대한예수교장로회 동서부회 원로목사회 (회장 피종진 목사) 개성교회 (노원수 목사) 010-3162-8880

대한예수교장로회 www.nsc.or.kr
남서울중앙교회 Tel. 02)3411-9191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40(개포동) Fax. 02)401-7770



은혜의동산교회 성도 440명 장기기증 서약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전국 12개 교회서 생মন눔예배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진택 목사)는 사순절을 맞아 전국 12개 교회에서 743명의 성도가 장기기증에 서약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 화성 은혜의동산교회(이규현 목사)에서는 지난 12월 전 교인이 생মন눔예배를 드리고 장기기증을 서약했는데 440명이 희망등록에 참여했다. 올해 단일 교회로는 최다 인원을 기록한 것이다. 앞서 지난달 첫 생মন눔예배를 드린 광주 북구 매곡중앙교회(박봉주 목사)에서도 36명이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했다.

이 밖에 용인동광교회(이광염 목사) 경산감리교회(이종혁

목사) 동남교회(제종원 목사) 대동교회(전철민 목사) 한림교회(김효근 목사) 성일교회(전백순 목사) 금성교회(김병호 목사) 창녕선교교회(노광수 목사) 시온중앙교회(이성운 목사) 선홍중앙교회(김성학 목사)가 생মন눔에 동참했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는 6만9439명으로 2021년(8만8865명)에 비해 22%가량 줄었다. 45사 장기기증자 역시 지난해 405명으로 2021년(442명)보다 감소했다. 반면 장기기증 대기자 4만9765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mission 선교의 창 (213)



송종록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통즉불통 불통즉통(通卽不痛 不通卽痛)

“통즉불통 불통즉통”이란 무슨 뜻인가? 몸의 기혈이 통하면 아프지 않고, 몸의 기혈이 막히면 아프다는 뜻이다. 이는 허준의 동의보감 잡병편(雜病篇) 제 1권 용약(用藥)에 나오는 말이다. 한의학 용어인 이 내용은 비단 신체뿐만 아니라 세상만사에 다 적용된다. 이를테면 공기는 통해야 신선해지고 물도 순환되어야 썩지 않는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이다. 소통(Connection)이 얼마나 중요한가? 서로 통하지 않으면 오해하기 쉽고 후에는 부딪치게 된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끼리 관계가 파괴되고 불통(Disconnection)되면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소통의 문제는 개인을 넘어서 축구 같은 구기 종목, 지휘자를 중심으로 한 오케스트라 대원들, 전쟁터에서의 군인들 등 모든 분야에 요구된다. 우리는 지난 3년간 COVID-19로 인하여 딱 막힌 세상에서 살았다.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는지 모른다. 지금 코로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 해도 세상은 닫힌 곳이 너무나 많다. 목회나 선교 현장도 예외는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불통즉통(不通卽痛)인 삶의 현장을 통즉불통(通卽不痛)의 사회로 만들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1. 대뭍관계

B.C. 239년 중국 진나라의 재상인 여불위가 주도하여 편집한 백과사전인 “여씨춘추(呂氏春

秋)”에는 이런 글이 있다. “무릇 사람은 삼백육십 개의 마디와 아홉 개의 구멍과 오장과 육부가 있다. 피부는 조밀하기를 바라고, 혈맥은 통하기를 바라며, 정기는 운행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하면 병이 머물 곳이 없고, 추한 것이 생겨날 근거가 없게 된다. 병이 머물고 추한 것이 생겨나는 것은 정기가 막혔기 때문이다.” 우리가 병을 치료한다고 할 때의 ‘치(治)’는 물수변이

치수’라는 말에서 왔다. 무릇 생명에는 흐름이 있다. 이 흐름에 변화가 생겨 순조롭지 못할 때 병이 나는 것이다. 만일 흐름이 완전히 막히면 생명체는 죽게 된다. 따라서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기혈(氣血)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체력관리를 잘해야 한다. 동양의학에서는 무병장수(無病長壽)의 첩경을 3개로 말한다. 그것은 쾌식(快食) 쾌면(快眠) 쾌변(快便)이다. 여기서 쾌(快)의 의미는 “쾌할 쾌, 빠를 쾌”로서 기쁨의 의미와 함께 막힘이 없이 빠르다는 의미를 포

함하고 있다. 한마디로 통즉불통(通卽不痛)을 강조함이다.

2. 대인관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은 ‘영적인 존재(Spiritual Being)’이다. 그의 의미는 하나님과 소통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소통은 생명이고 불통은 죽음이다. 죽음이란 생명인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을 의미한다.

다. 에덴동산은 하나님과 아담-하와가 함께 한 소통의 공간이었다. 그러나 인간이 절대적 말씀을 거역함으로써 죄가 시작되었다. 그 죄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면전에 설 수 없게 했으며 고통을 가져왔다.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은 인간 구원을 위해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히10:11-12). 이

로써 인간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통(通)하게 된 것이다. 이는 인간이 창조주와의 관계회복을 의미한다. 아무튼 언약백성이 하나님과 단절되면 그 고통은 형언할 수 없다. 그 사례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난다. 바로 신, 구약의 중간기인 400년간이다.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인들은 하나님의 계시와 목시를 전혀 들을 수가 없었다. 칠홍같은 영적 암흑시대가 된 것이었다. 인간은 누구나 세상이 힘들어도 뭔가 소망이 있으면 헤쳐 나갈 수 있다. 하나 앞이 안 보이면 좌절할 수밖에 없다. 신(神)과의 단절은 이처럼 무섭다.

3. 대인관계

인간은 사회적 존재(Social Being)이기도 하다. 사회적 존재란 ‘너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한다’는 뜻이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유대 신학자이며 철학자인 마틴 부버(Martin Buber)는 “모든 참된 삶은 만남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인간의 삶은 ‘나’와 ‘너’의 만남의 연속이다. 아기가 태어나

처음 만나는 ‘너’인 엄마를 시작으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너’를 만나게 된다. ‘너’로 인해 행복해하기도 하지만 그들 때문에 상처받고 가슴 아파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왜냐하면 나는 너로 인하여 비로소 나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와 너의 관계는 소통을 수단으로 한다. 오늘날 세상에는 마음이 흐르지 않아서 고통과 불행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 부부간, 부자간, 형제간 등 가까운 사이일수록 관계가 단절되면 그

이름은 배가 된다. 불통의 주된 원인은 이해와 관용과 사랑의 부족 때문이다. 다른 표현을 들자면 타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역지사지(易地思之)적 사고(思考)의 부재이기도 하다. 따라서 마틴 부버가 언급한 대로 ‘나-너’의 근원 어에 바탕을 둔 진솔한 대화(Dialogue)로 나아가면 어떤 막힌 담이라도 허게 되며 나아가 서로 간에 아픈 생체기를 치유하고 관계의 단절도 속히 회복할 수 있다.

4. 대물관계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니라”(창 3:17). 인간의 타락은 이렇게 자연 세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 세상의 생태환경은 서로 통하게 되어있다. 예를 들면 물은 그 순환에 있어서 신비롭다. 물은 증발할 때 염분과 불순물이 제거된 후 기체로 변한다. 만약 물이 정체되지 않은 채 증발하여 비로 내린다면 지구에는 대재앙이 오고 말 것이다. 그것은 모든 생명체의 사멸을 의미

발생하는 지진 등이 우연일까? 이미 우리 인간은 사방에서 경고음을 들으며 피해를 입고 있다. 이제 우리는 탐욕을 절제하며 청지기적 신분으로서 우주 만물을 잘 관리해야 한다. 그 한 방편은 생태계의 자연적 흐름과 순환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다. 불통즉통(不通卽痛): 통하지 않으면 고통이 따르기 때문이다.

맺음 말

웃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나머지는 흐트러지기 마련이다. 크리스천들에게서 첫 단추란 대인관계이다. 늘 하늘을 향해 마음의 창이 열려있으면 문제될 것이 없다. 대뭍관계는 우리 몸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다. 그 핵심은 기(氣)와 혈(血)이 잘 통(通)하게 하는 일이다. 대인관계는 이웃과 소통(疏通)을 잘 해야 한다. 능동적 만남은 피차간에 긴장과 갈등을 줄이고 원활한 조직사회를 만들어가며 행복감을 주게 된다. 대뭍관계에서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가? 를 반문하며 살아야 한다.

통즉불통(通卽不痛): 통하면 고통이 없다.
불통즉통(不通卽痛): 통하지 않으면 고통이 있다.
창조질서를 포함해 세상 만물의 이치는 서로 통(通)하게 되어 있다.

인간이 눈앞의 쥐꼬리만 한 탐심 때문 창조질서를 깨고 도전하면 반드시 그 해(害)를 받게 되어있다. 작은 이익 때문에 더 큰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면 통탄할 일이다. 이렇듯 인간사에서 불통(不通)은 모든 문제의 원인이어서 진통을 낳게 되고, 진통은 고통을 가져오기에 우리는 통즉불통(通卽不痛)의 삶과 생활 환경이 되도록 열심을 내야 한다. 이는 우주적 선교의 한 일환이다.

jrsong007@hanmail.net

인문학으로 읽는 예수님 생애

⑩ 예수님을 재판한 산헤드린 연구

예수님은 유대인 최고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고 정죄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려간 예수는 산헤드린의 세 당파의 대표자들인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과 대질합니다. 유대 사회의 원로원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산헤드린은 로마 총독의 통제하에 유대인 내정을 관장하는 최고 기관이었습니다.

‘산헤드린’이라는 표현이 신약성경에 22회 등장합니다. 복음서에 5회 등장하고, 사도행전에 14회 등장합니다. 그리고 서신서들에서 세 번 산헤드린이 등장합니다. 성경에는 산헤드린이라는 이름이 아닌 ‘공회(Council)’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을 소개하면서도 누가는 산헤드린이라는 표현 없이 ‘공회의원’이라(눅 23:50)고만 언급합니다.

성경 밖에도 많은 자료가 산헤드린에 관해서 언급합니다. 탈무드나 랍비문서에 산헤드린은 자주 등장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도 산헤드린에 관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요세푸스는 ‘시리아의 로마 총독 가비니우스(Gabinius)가 B.C. 57년에 이스라엘에 5개의 산헤드린을 만들었다’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는 예루살렘 외에도 작은 산헤드린이 다수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산헤드린의 설치와 운영에 로마 정부가 깊숙이 개입하고 있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역사의 격동기를 거치면서 유대인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기관들을 두었습니다. 우선 회당입니다. 유대인은 성인 남성 10명 이상이 있으면 회당(Synagogue)을 보유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많은 회당이 있었고 예수님이 방문하신 지역마다 회당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방문했던 도시들에서 가장 먼저 회당을 찾았던 것은 잘 알

려진 일입니다.

회당과 더불어 산헤드린이 있었습니다. 산헤드린은 유대인 성인 남자 120명이 거주하는 곳에 설치해야 했습니다. 지방의 소도시일 경우 산헤드린의 정원은 71명이 아닌 23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산헤드린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첨

예한 갈등을 막기 위해 인원이 홀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 사회에 다수의 산헤드린이 존재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로마제국은 많은 점령지를 쉽고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점령지의 상황에 맞게 지방 자치정부와 지방문화와 종교를 허용하였습니다. 이것이 로마제국의 문화 정책이었습니다. 로마는 유대교를 인정했고, 초대교회의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로 로마 정부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로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USA대표)

마 정부의 문화 정책에 편승해서 유지되고 운영된 자치기구가 바로 유대인 최고 기구인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산헤드린의 기원은 모세가 광야에서 자신을 대신할 지도자 70명을 임명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물론 광야의 지도자들과 산헤드린의 기능이 일치하

산헤드린 공회는 국민을 다스리기 위해 최소한 매질할 권리와 투옥할 권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종교법은 자체 판결로 투석형(사형) 집행이 가능했고, 정치범에게는 로마 정부의 인정하에 십자가형(사형) 집행도 가능했습니다. 스테반은 산헤드린의 결정에 따라 성소 모독이라는 종교법 범법자로 투석형으로 사형을 당했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형은 불법적 요소가 많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신성모독 죄로 판결을 내리지만(마 26:65; 막 14:64), 청중들을 두려워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기며 정치범으로 둔갑시

킨 것을 증언합니다. 예수님 십자가형은 반란음모자에 대한 처형이었습니다. 신성모독 죄로 시작된 재판이 정치적 재판으로 끝난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재판 과정이 불법임을 복음서 저자들은 고발합니다.

산헤드린의 다양한 불법은 해롯 왕가에 의해 이뤄졌습니다. 요세푸스는 ‘해롯이 왕이 되기 전에 그가 행한 갈릴리 사람들에게 대한 불법적 폭력과 처형으로 산헤드린이 그를 고발하고 심문하려 했을 때, 해

롯은 오히려 무력으로 공회원들을 죽이고 자기의 사람들로 공회를 채웠다’라고 전합니다. 그 후에 해롯 가문의 왕들이 산헤드린을 유린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로 구성되었지만, 의장은 대제사장이 맡았습니다. 산헤드린의 의장을 ‘나시(nasi)’라고 불렀는데, 로마제국은 산헤드린을 통제하기 위해 산헤드린 의장인 나시를 임명권을 행사했습니다. 유대지방 총독의 주요한 임무가 산헤드린 통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시절의 산헤드린 의장은 로마 총독 코포니우스에 의해 임명된 대제사장 안나스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재판 당시의 산

헤드린 의장은 가야바였습니다. 그는 안나스의 사위로 대제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서신 산헤드린 법정정은 가야바의 법정이었지만 영향력은 안나스가 더 컸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온갖 죄악과 불법이 가득한 가야바의 법정 이 의로운 예수님을 정죄한 것은 인류 최악의 아이러니입니다.

Kangtg1207@gmail.com

매일가정예배

김덕수 목사(하늘소망교회/생터사역원 LA지부장)
dsukim@gmail.com

월 탐욕의 끝은 사망입니다 (왕하 5:15~27) 찬 435장

나야만은 나병에 걸렸다가 엘리사의 지시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씻은 후에 깨끗하게 고침받았습니다.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선물을 전달하려 하지만 엘리사는 거절합니다. 그런데 게하시의 엘리사가 거절했던 나아만의 선물이 탐났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을 쫓아가서 선물 중 일부를 받아냅니다. 그리고 '어디 갔다 오느냐?'라는 엘리사의 질문에 '아무 데도 가지 않았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결국 게하시의 탐욕과 거짓말로 인하여 나병환자가 됩니다.

탐욕의 끝은 저주와 사망입니다. '돈'이 나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과 '돈에 대한 탐심'이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고 갑니다(딤후 6:10). 이스라엘 백성들도 탐심 때문에 광야에서 고기를 원했고, 그 일 때문에 광야에서 사망을 경험했습니다(민 11:4~35). 세상의 가치에 대한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만족(벧 4:11~12)합시다.

화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왕하 6:20~23) 찬 352장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엘리사를 잡으려 왔던 군사들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잘 대접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아람 왕은 이스라엘과 전쟁하기를 그쳤습니다(왕하 6:20~23). 엘리사는 선으로 악을 이긴 것이었습니다. 악은 악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악을 악으로 대적하면, 더 큰 악으로 공격받게 됩니다.

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롬 12:21)."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악'으로 공격할 것입니다. 악으로 대항하며 지지 말고, 하나님의 선으로 맞서 싸워 이깁시다.

수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약속 (왕하 8:13~15) 찬 267장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였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왕상 19:15). 엘리야는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한 후, 이세벨의 험박받고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죽기를 구했습니다.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왕관이 선포되었는데, 여전히 세상 나라의 아합과 이세벨은 기세등등하게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승리한 것이 맞습니까?'라는 질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4가지 징표를 보여주셨습니다. '바람, 지진, 불'이 있고 난 뒤에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하사엘, 예후,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너는 네 구간만 달려라. 내 나라는 내가 세우고 세상 나라는 내가 심판한다'는 의미를 담은 말씀입니다. 엘리야에게 예언하신 대로 정말 그 모든 일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목 시작도 끝도 좋아야 합니다 (왕하 10:30~36) 찬 333장

예후는 28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잘 행하였지만, 결국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의 길로 행하다가 죽었습니다. 예후를 이어서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후를 아합을 심판할 왕으로 세우셨

습니다. 아합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잘 행했습니다(왕하 10:30). 그러나 그 신실함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의 삶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왕하 10:31). 시작이 좋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도 좋아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신실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금 절망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왕하 11:1~3) 찬 292장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아합의 딸 아달라가 남 유다의 왕이 된 후, 그녀는 유다에 속한 모든 왕족(왕이 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왕자)을 다 죽였습니다. 유다의 다윗 왕조가 완전히 몰락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아스'의 고모인 '여호세바'를 통하

여 요아스를 살려내십니다(왕하 11:1~3). 절망적이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십니다. 상황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토 중단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왕하 13:20~21) 찬 86장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죽음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것 같은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다가, 그 시신을 엘리사의 무덤에 던졌습니다. 그 시신이 죽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그 시체가 살아 일어났습니다(왕하 13:20~21).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엘리사

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은 다함이 없고,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견디고 버틸 수 있습니다.

기독교교육 (24)



김종환 목사 (달라스침례대학교 교수)

기독교교육과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는 보수를 받지 않고 사역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들은 교회의 회원으로서 권리와 책임을 공유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은 모집에 응한 후 훈련을 통해 사역에 동참합니다.

들이 사역을 나누어 감당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사역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모든 신자는 제사장입니다(출 19:5-6; 히 4:14-15; 벧전 2:4-9; 계 1:4-6; 5:6-10). 베드로전서 2:9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가르침에 의하면 사역의 권리와 책임이 교회에 속한 모두에게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할 때 기억해야 할 성경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 사역자들은 초자연적으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보는 것처럼 성령님이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주십니다. 모든 신자는 각자가 봉사해야 할 위치가 있습니다. 각 크리스천이 봉사해야 할 곳을 잘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사람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에서 그 권리와 책임이 보수를 받는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과적으로 회중은 사역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다른 사람들의 사역을 위해 헌금하는 것으로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사역자들은 관계를 맺은 후 파송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14-15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먼저 예수님과 함께 있도록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후에 사역을 위해 나갔습니다. 사역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일꾼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난 후에 사역에 임하게 됩니다.

셋째, 사역자들은 선별된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사람 누구나 사역을 맡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9:57-62에 예수님에 의해 선택을 받지 못한 세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물리적인 삶을 바꾸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 사람은 자신의 관계적인 삶을 바꾸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 사람은 즉각적으로 헌신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사람도 예수님이 사용하신 기준에 따라 사람들을 모집해야 합니다.

그리고 넷째, 사역자들은 훈련을 거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들의 사역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모집하신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훈련의 과정을 거친 후에야 사역의 현장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눅 10:1-20).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사람도 사람들의 능력을 파악하고 그들이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사람들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훈련해야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들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역을 위해 교역자들을 고용할 정도로 재정이 충분한 교회는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사역을 위해 자격을 갖춘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일에 동참할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야 합니다.

자신 자원봉사자들의 동참 여부는 사역의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8:19-20에서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을 제자 삼으라는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지상명령을 주시기 전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 9:37-38). 그것이 오늘날 교회들의 현실입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역은 많습니다. 그러나 사례를 받는 사역자들만으로는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사실 자원봉사자들의 동참 여부는 사역의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8:19-20에서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을 제자 삼으라는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지상명령을 주시기 전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 9:37-38). 그것이 오늘날 교회들의 현실입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역은 많습니다. 그러나 사례를 받는 사역자들만으로는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자신 자원봉사자들의 동참 여부는 사역의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8:19-20에서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을 제자 삼으라는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지상명령을 주시기 전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 9:37-38). 그것이 오늘날 교회들의 현실입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역은 많습니다. 그러나 사례를 받는 사역자들만으로는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사역에 동참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녀들이 훈련을 통해 봉사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고 훈련하는 것은 그들이 봉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교우

교회의 사역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원봉사자들은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 일련의 과정을 거쳐 교회의 사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jonk@dbu.edu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절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모든지역 - 대형 파랑장 준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포드 예비부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윗저지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세계 곳곳에 있는 소수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국가명
동아시아 X국

▲ 종족명
JR 종족

▲ 인구
약 25만 명

▲ 종교
라마불교, 2개의 지하교회(모어가 아닌 공용어 예배)

▲ 기타
JR어로 된 공식 글자가 없어 구어(口語)만 사용한다.

▲ 프로젝트 소개
성경 번역을 하는 동안 현지인 성경 번역팀과 교회 지도자가 세워지고, 번역된 성경을 기초로 종족 문화와 언어가 개발되고 건강한 토착 교회가 세워져, 지역 종족 복음화에 쓰임 받기를 기대한다.

▲ 프로젝트 진행
2008년부터 신약 성경 번역이 시작되었으며, 2022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출판되었다. 2023년 요한복음 번역이 완성되었으며, 지금은 마태복음 번역이 진행 중이다.

▲ 기도제목
1. 나머지 신약 성경 번역이 잘 진행되도록
2. 현지인 사역자를 보내 주시도록
3. A 가정과 C 가정의 믿음이 굳건해져서 이 두 가정을 통해 다른 믿는 현지인들이 많아지도록

(GBT 성경번역선교회)

가정선교

이재근 목사
(미주가정선교회 대표)



65. 졸혼(卒婚)

졸혼은 위장 포장된 이혼의 변질된 동의어

시대와 세상이 급변하면서, 가정의 문제가 다양하게 양산되고 있는 가운데, 가정에 대한 변태적인 새로운 신조어가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졸혼(卒婚)이란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Graduation from Marriage' 이고, 일본어로는 '소츠콘'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결혼을 졸업한다'는 뜻이지만, 이혼(離婚)과는 다른 신개념으로 일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새로운 가정 풍속 도입입니다.

졸혼한 부부는 혼인관계는 계속 유지하되, 서로의 삶에 간섭하지 않고 서로서로 자신의 인생을 즐기면서 독립적으로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고 어느 정도 나이가 되어, 자식들도 독립을 하게 되면, 부부가 서로 동거 또는 별거해 살면서 각자가 좋아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선택하여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1. 졸혼의 유래와 장단점

졸혼이란 말은 2004년 일본 작가 스기야마 유미코가 쓴 <졸혼(卒婚)을 권함>이란 책을 통해 처음 등장하면서 일본에서 유행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도 2017년 예능프로그램에서 배우 백일섭 (73)씨가 40여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졸혼했다고 고백 화제를 모았습니다. 한국 최고의 남자배우였던 고 신성일씨와 유명한 작가였던 고 이외수씨 등도 같은 경우의 졸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자의 말을 빌리자면, 졸혼의 장점은 "자신의 인생의 후반전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또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졸혼의 단점은 졸혼하고 동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별거를 할 경우에는 부부가 따로따로 살아가기 때문에 주거비, 생활비가 이중으로 발생한다는 점, 즉 돈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2. 졸혼 정립 10계명

영국 옥스퍼드대의 노년학 전문가인 새러 하퍼 교수의 <졸혼 정립 10계명>을 소개하면, ① 부부간의 합의가 있어야 한



다. ② 경제적인 형편이 선행되어야 한다. ③ 독자적으로 자립하는 힘을 갖춰야 한다. ④ 나름대로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⑤ 기존 결혼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에 대해 사전협의 또는 동의가 필요하다. ⑥ 상황에 따라 '수시' 또는 '일정기간' 동안,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가정내 복귀'를 목표로 두어야 한다. ⑦ 결혼 초기부터 생애 설계를 통해 '졸혼 타임'을 설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⑧ 단계적 졸혼 방식을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⑨ 삶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높이는 계기로 생각한다. ⑩ 각 부부에 적합한 '구체적인 룰'은 수시로 만들어 나간다'입니다. 졸혼부부의 삶도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3. 졸혼과 이혼, 별거의 차이

몰이해와 혼돈을 피하기 위해, 졸혼과 이혼 그리고 별거를 종합 정리해 본다면, 별거는 이혼의 전 단계로 같은 집 또는 집을 떠나서 잠시 서로 떨어져 사는 것을 말하는데, 이혼은 결혼했던 남녀가 서로 서로가 법적

로 완전히 갈라져서 남남이 되는 것입니다. 졸혼은 내적으로 보면, 혼인관계는 유지하면서, 서로의 삶에 간섭하지 않고 서로 서로가 자신의 인생을 즐기면서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대외적으로 보면, 정상적인 부부와 똑같이 행세하므로 '쇼윈도 부

부'와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졸혼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감정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이혼, 별거와 구별됩니다. 이혼이나 별거의 경우는 서로 정기적으로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졸혼의 경우는 부부가 서로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만큼 주기적인 만남을 갖습니다.

4. 졸혼에 대한 인식

그냥 이혼이라고 하면 될 텐데,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왜 졸혼이라고 하느냐?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시기상조적인 문화라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인식과 사랑이 식은 상태로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보다 배우자의 간섭을 피하고, 결혼생활 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을 노후에라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리고 이혼부부 10쌍 중 3쌍이 황혼이혼하고 있는 현실에서 황혼이혼의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인식이 상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식의 차이가 크므로, 옳고 그름의 판단은 각자에게 맡깁니다.

5. 졸혼에 대한 성경적 관점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노라"(말 2:16)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혼을 제정하지 않으셨고, 허락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마 19:5-6)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을 통하여 한 몸이 된 부부가 두 몸으로 나뉘어지는 이혼을 예수님이 반대하셨던 것입니다. 이혼은 이방인의 인적 제도이고, 결혼은 하나님의 신적 제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별거에 대하여도,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전 7:5)고 했고, "분을 품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엡 4:26-27)고 했습니다. 별거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심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졸혼은 잘 포장되고 위장된 이혼이고, 이혼이나 다름 없는 변질된 동의어로 자칫 잘못하면 가정이 진짜 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별거나 이혼, 졸혼을 원치 않으시고, 미워하신다는 것이 성경적 관점입니다. 사탄의 말세기적인 위장된 가정 파괴 작전에 미혹되어 넘어가지 말고,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굳건히 파수하고 지키는 것이 가정선교입니다.

jaekunlee00@hotmail.com



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택진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1:00
 주일 5부예배: 오후 2:30
 지역예배: 오후 7:30
 Tel: (031) 387-6754-5
 군포시 오금로 102 (금정동 370-10)

<p>금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주일 5부예배: 오후 7:30 www.kumran.org Tel: (82) 493-7000 (국) Fax: (82) 436-5770 서울시 중랑구 망우로 455</p>	<p>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양희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주일 5부예배: 오후 7:00 주일 6부예배: 오후 9:00 Tel: (031) 877-8383-4 Fax: (031) 877-8382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752</p>	<p>새이덴교회 담임목사: 조장석 주일 1부: 오전 7:30 주일 2부: 오전 9:30 주일 3부: 오전 11:00 주일 4부: 오전 12:30 주일 5부: 오후 2:30 (물문이를 위한 현대예배) 대표전화 (031) 996-1000, 팩스(031) 996-8077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00(우)16889지번 : 죽전동 1312</p>	<p>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30 주일 5부예배: 오후 3:00 www.seongsil.or.kr Tel: (82) 2-988-9988, Fax: 3827-1008 서울 강북구 노재로 50 (우편번호: 01072) 지번: 서울 강북구 수유동 221-48</p>	<p>성일교회 담임목사: 윤성욱 주일 1부예배: 오전 5: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주일 5부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토요일도 섬깁니다) Tel: (82) 2-2643-8533-4, Fax: 2648-4682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남로3가길 121</p>	<p>수정교회 담임목사: 이성준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주일 5부예배: 오후 7:30 Tel: (82) 32-568-0191 Fax: (82) 32-562-2738 인천 서구 불로로 64 (도로명주소)</p>
<p>승동교회 담임목사: 최영태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주일 5부예배: 저녁 7:00 Tel: (02) 732-2341~3, 사택(02) 389-2235 서울 중로구 인사동길 7-1</p>	<p>사은소교회 담임목사: 김철승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00(월-토) Tel: (031) 253-1004, Fax: (031) 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100번길 33 시은소교회 (미리동 419-2)</p>	<p>신길교회 담임목사: 이기용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3:00 Tel: (82) 2-842-1988, 사택(011) 82-2-842-1988 0724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문대로 101 (C.C.M.M) (영등) 국민일보</p>	<p>신촌교회 담임목사: 박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6:00 주일 2부예배: 오전 7:30 주일 3부예배: 오전 9:3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30 Tel: (82) 2-3142-6080, Fax: (82) 2-336-4188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 12길 11 www.eshincho.org</p>	<p>안암제일교회 담임목사: 김명환 주일 1부예배: 오전 9:2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후 8:00 Tel: (82) 2-264-4508 서울시 동대문구 안암로 33길 50-1 www.anamjeil.or.kr</p>	<p>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주일 5부예배: 오전 10:30/오후 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오후 9:00 Tel: (052) 210-5500 Fax: (052) 210-5510 경상남도 창원시 창성리 상산구 봉원로 411 www.yanggok.org</p>
<p>왕성교회 담임목사: 길요나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Tel: (82) 2-888-4813, 331-284-7204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 308</p>	<p>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신일권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심야기도회: 오후 9:30 Tel: (02) 942-6881, Fax: (02) 942-6882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진로 95길 83</p>	<p>주안교회 담임목사: 주승중 주일 1부예배: 오전 6:00 주일 2부예배: 오전 8:0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후 12:00 주일 5부예배: 오후 2:00 주일 6부예배: 오후 4:00 주일 7부예배: 오후 7:00 Tel: (82) 332-527-1009 부평성진 21377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 213(사곡동)</p>	<p>창대교회 담임목사: 최홍도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3:00 Tel: (82) 2-482-3536 Fax: (82) 2-488-4508 (05407)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대로 219</p>	<p>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최현석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82) 432-75-9191, Fax: (043) 273-8114 (28647) 충북 청주시 서현구 내수동로 133 (사평동)</p>	<p>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천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30 Tel: (82) 2-793-7740 (04427) 서울시 용인구 이천로 188</p>

기/도/칼/럼

떠도는 새



박현승 목사
(토론토 서부장로교회)

'2023년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조사 통계자료를 근거로 한국교회를 진단하고 예측하여 목회자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책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자유로운 신앙 패턴을 가지게 된 교인들을 '플로팅 크리스천(Floating christian)'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붕 떠 있는 크리스천, 여기저기 떠도는 크리스천"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여러 교회의 온라인 예배를 기웃거립니다. 그러다가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바뀌게 되고, 주일 성수의 개념마저 무너지게 됩니다.

한국교회 안의 플로팅 성도, 떠도는 교인들을 보며 '좌불안석(坐不安席)'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앉아 있어도 자리가 편안하지 않다는 뜻으로, 불안·근심 등으로 한군데에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고 안절부절못하는 모양을 이르는 말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여기가 내 집이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배도 내 취향대로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내 중심의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구경하는 예배입니다.

어느 분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동안 결혼하고 22번이나 이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았는데, 돌아보니 허전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22번이나 이사를 했지만, 아직 생활의 안정을 얻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웠습니다. 마음이 안쓰러워 격려하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의 복된 삶을 물가에 심어진 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뿌리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이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렘 17:8)고 했습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뿌리를 튼튼히 내려야 합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나무는 결국에 가서 뽑히고 맙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곳에 깊이 예배의 뿌리,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교회는 영혼의 고향이요 집입니다. 마음의 안식처입니다. 붕 떠 있어 여기저기 떠도는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플로팅 크리스천'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도 같습니다.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잠언 27:8)

bible66@gmail.com

신앙 에세이

무엇에 사로잡혀 살 것인가



류응렬 목사
(와싱턴중앙장로교회)



모든 사람은 어딘가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무엇에 사로잡혀 사는가, 그것에 따라 인생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중독에 대한 흥미로운 내용을 다루는 책이 있습니다. Gerald May가 쓴 <중독과 은혜, Addiction and Grace>에서 하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어딘가에 중독이 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은 자신이 중독자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메이 박사는 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중독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소개합니다. 중독이란 영어로 addiction이라고 하는데, 이 말이 프랑스 아파쉬, attache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딘가에 사로잡혀 있는 묶여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중독이라는 말이 관계적으로 그것에 묶여 있는 포로 된 것과 같다는 겁니다.

사실 무엇에 혹은 누군가에게 사로잡혀 사는 것은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신이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고백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12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온 세상이 변한다 해도 "오직 나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 잡으려 달려간다는 바울의 고백.

예수님을 만난 후로 지난 30년 동안 복음 때문에 매도 맞고,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강도의 위협과 온갖 수모를 다 겪은 바울이었습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잡혀갔을 때 베스도 각하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를 보고 왕이 하는 말입니다. 바울아,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바울은 미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났고, 예수님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에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인생의 새로운

목표를 발견했고, 내 전부를 던져도 좋을 만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무엇을 뜻대로 삼고 달려가고 있는지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 내 인생을 걸 만한 목표가 맞는지, 내가 잡고 있는 그 뜻대 끝에서 우리가 만날 분이 예수가 맞는지.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쓴 꿈이라는 글입니다. "사람의 몸은 끊임없이 뛰던 심장이 멈출 때 죽지만, 사람의 영혼은 빛을 받하던 꿈을 잃을 때 죽습니다."

크리스천에게는 누구나 꿈이야 할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진 그 꿈,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 그 꿈, 제자들을 부르시고 부탁하신 그 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을 내 전부를 던져 이루어야 할 사명이라 부릅니다. 온 세상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날, 비로소 이 꿈을 향한 우리의 심장은 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먼저 그 사명에 사로잡혀 자신을 드린 분입니다. 죽은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 죽음의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죽음의 길마저 오직 사명에 사로잡혀 두벽두벽 걸어가는 예수님, 그 주님의 희생으로 살아난 사람이라면 이제 우리가 주님의 포로로 살아야 할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노래하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preachchrist@kcpc.org



튀르키예 강진 긴급구호
무너진 튀르키예,
지금 아니면 늦습니다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긴급구호팀을 파견하여 즉각적인 지원에 나섭니다.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튀르키예, 시리아 재난현장에 100만 달러 규모의 긴급구호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긴급구호 전담 직원을 파견해 긴급구호 키트 배분을 비롯해, 향후 일상 복귀를 위한 재건을 돕습니다. 미주기아대책(KAFHI)은 기아대책(KFHI), 국제기아대책(FH)과 협력하여 이재민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월 6일 새벽 규모 7.8의 강진.

7층짜리 건물도, 사람들의 삶도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건물 잔해에 깔린 사람들의 신음과 생사를 모르는 가족을 찾는 생존자들의 울부짖음이 뒤섞여 튀르키예 곳곳은 아비규환입니다.

사망자 21,000명 (2023년 2월 10일 기준)

시시각각 이 숫자는 늘어나고 있고, 최대 20만 명의 사망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진으로 무너진 한국인 선교사가 파송된 안디옥 개신교회 (기독교감리회)

지금 돕지 않으면 늦습니다. 튀르키예(터키)를 도와주세요.

송금) Bank: Fifth Third Bank (5/3 Bank)
Account Name: Korean American Food for the Hungry Intl.
Account Number: 7935287420
수표) Pay to the order of: KAFHI
Memo: 튀르키예 긴급구호
보낼 주소: KAFHI, 411 Kingston Ct. Mt PProspect, IL 60056
연락처) 847 296 4555, 703 473 4696, 이메일 kafhi@fh.org



\$50
5인 가족
5일치 식량

FOOD KIT (식량형키트)



\$100
5인 가족 피복/
세면도구 등

NON-FOOD KIT(비식량형 키트)



\$200
5인용 안전/
방한 텐트 지급

SHELTER KIT(쉘터형 키트)